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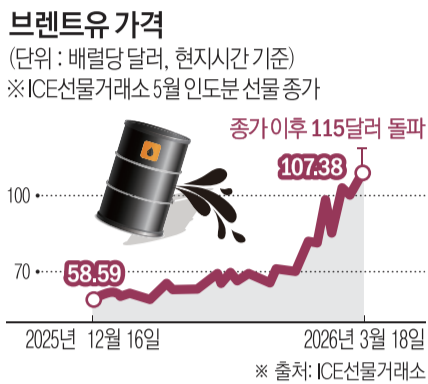
노태문 만난 리사 수... "AI 협력 생태계 확장" 6

작년 혼인건수 7년 만에 최다 10

코스피(1991) 5763.22 (-161.81P) 코스닥 1143.48 (-20.90P)  
환율(원·달러, 15시30분) 1501.00 (+17.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329% (+0.068%p)

## 중동 '에너지 전면전'... "유가 130弗 갈 수도"

이스라엘, 이란 최대 가스전 공격  
이란, 카타르·UAE 가스시설 보복  
브렌트유, 亞시장서 115弗 돌파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가스 시설 허브를 두고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군사 목표에서 에너지 인프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전쟁이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약 16만5000원)를 재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이 더욱 고조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1.0원으로 치솟으면서 주간 거래 중

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2·3·4·12면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전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를 미사일로 타격하자 이란이 곧바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경고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들은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됐다"면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란은 전날 오후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 밀집 지역인 라스라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 라스라판은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약 70km에 있는 산업 도시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수출 거점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날도 이틀째 라스라판에 미사

일 공격을 가했다. UAE의 에너지 허브인 합산 지역도 공격을 받아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됐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다 에너지 인프라가 본격적인 공격 대상이 되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전 거래일 대비 3.8% 오른 배럴당 107.38달러로 마감한 후 이날 아시아시장에서는 배럴당 115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씨티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며칠 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중동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공격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에는 올 2~3분기에 평균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 2면에 계속 이진영 기자 mint@

과자·아이스크림도 최대 400원 싸진다  
내달부터 19개 품목 가격 인하

식용유·라면에 이어 제과·빵·빙과까지 최대 13.4%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격 안정 압박이 식품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가격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과·제분업체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웰푸드, 빙그레, SPC삼립 등이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정책 기조에 따른 대응 성격이 짙은 만큼, 시장 기능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중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 실태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12개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과 유통 비효율,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는 즉각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앞서 제과·제분업체들이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평균 3~6% 하향 조정했고, 식용유 6개 업체는 350~1250원, 라면 4개 업체는 40~100원 인하를 결정했다. 제과·양산빵·빙과업체들은 4월 출고분부터 19개 품목을 100~400원 인하한다. 제과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 오리온 등 3개 업체가 제품 10종 가격을 평균 2.9~5.6% 내린다. ▶ 10면에 계속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BTS 컴백 공연 D-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공연 넘어 경제 활기... 서울 흔드는 'BTS노믹스'

광화문 일대 최대 26만명 방문 예상  
숙박·외식 등 전방위 소비 확대 기대  
팬덤 기반 K콘텐츠 경제 파급력 확장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세빛섬, 청계천, 반포대교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는 BTS 컴백을 기념하는 경관 조명이 연출된다. 청계천 일대는 '아리랑 라이트워크' 산책길로 조성된다. 공연 전후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장되는 구조다. 유통과 상권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명동과 광화문 일대 면세점·백화점은 BTS 굿즈와 K컬처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고 물량을 확대했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케이웨이브(K-WAVE)존'에서 굿즈와 K컬처 콘텐츠를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글로벌 팬 수요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소비 흐름은 미국에서 팝스타 테일러스위프트의 월드투어가 촉발한 스유폴노믹스(Swiftonomics)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공연 개최도 시마다 호텔·항공·외식 소비가 급증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했다. BTS 공연 역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국내에

서 재현되며 K팝 경제 효과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공연의 경우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의 상향에 따른 상승 효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희 문화평론가는 "공연과 연계해 도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화문뿐 아니라 팬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함께 제시할 때 공연 관람이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려는 팬심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투어리즘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관광 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주 기자 ssp@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알림

### 이투데이 '와이즈포럼' 개최합니다 시장 격변의 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

와이즈(WISE) 포럼은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 지식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재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 강연과 사례 중심의 투자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과 개인 금융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참가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시장 트렌드 분석, 자산 포트폴



리오 전략, 위험관리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포럼은 매월 투자 부문별 다른 주제로 진행됩니다. 3월에는 김학렬스마트튜브 소장,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주식전략파트장과 함께 부동산·주식 투자 방향을 모색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는 와이즈 포럼을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3월 27일(금) 오후 3시~5시 40분
- ◇장 소: 건실회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주 최: 이투데이 와이즈(WISE)포럼 사무국
- ◇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02-799-2683)

# 유가가 불붙인 환율 1500원 뚫었다...17년 만에 최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삼중고' 美 연준 '매파' 기조에 가치 급등 한때 1505원...일각 1550원 전망

원화환율이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휘청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원화 약세)를 보이며 '빅 피겨(Big Figure·주요 자리 숫자)'라 할 수 있는 1500원을 속절없이 내줬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9원(1.21%) 급등한 1501.0원(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개장 초에는 21.9원(1.48%) 오르며 1505.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0일(종가 기준 1511.5원, 장중 기준 1561.0원)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 야간시장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야간시장 장중 한때 1504.5원까지 올랐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남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했다. 이어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LNG 생산시설을 공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작한 미국·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피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전월 대비 +0.7%)해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미국·이란 전쟁이 반영되기 전부터 물가가 치솟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논의가 있었

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통화 긴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휘청였다.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1% 넘게 급락했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25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다시 100을 웃돌았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9.6bp(bp=0.01%포인트) 오른 3.7705%를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국자들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편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될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동 불안에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고, FOMC도 매파적이었다"며 "중동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에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한다면 시장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1470원에서 1510원 사이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3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고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15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정훈대신증권연구원역시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시설 공격과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원·달러가 많이 올랐다"며 "결국 유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한다면 원·달러는 1500원대안착보다는 150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상단은 1510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채권전문기자 kimnh21c@



## 멀어지는 금리 인하... 美 연준, 2회 연속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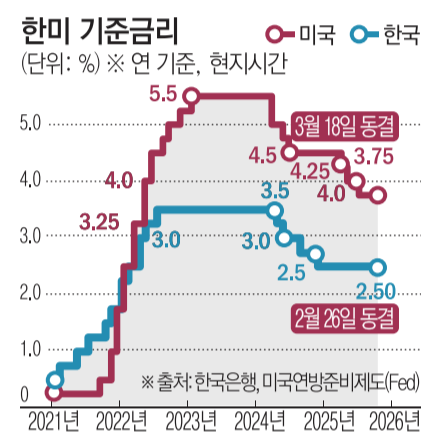
파월, 유가 관련 인플레이션 경고 한은도 내달 7회 연속 동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금리 동결은 예상과 부합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쟁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것이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준의 신중한 기조에 따라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기준 연 3.50~3.75%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금리를 동결한 것은 1월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동 지역의 상황 전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임무 양쪽에서 위협 요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전망은 경제 성과에 달려 있으며



로 경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오일 쇼크의 최종 결과는 소비와 고용에 대한 하방 압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은도 다음달 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일본은행도 같은 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금리를 0.75%로 동결해 연준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고대영 기자 kodae0@

美, 이란에 확전 자제 제안

▶1면서 계속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천 명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현재 지상군 투입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에너지 대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사우스파르스 시설을 더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한 상호 '확전 자제'를 제안했다. 또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Nice in Junggu

## 빈 집을 살리고 지구를 지킵니다

부산 중구  
**빈집뱅크**  
지속가능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전·월세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  
주택

# LNG 쇼크에 쏠려 '석탄 회귀'... 에너지 90% 수입 韓 소비상

## 에너지 인프라로 전선 확대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LNG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LNG 확보를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석탄 부활카드까지 꺼냈다. 한국 산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카타르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특히 카타르 LNG 수출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향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역대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주요 수입국의 카타르산 LNG 비중은 △인도 46% △대만 35% △중국 30% △태국 21% △한국 15% 등으로 파악된다.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전력 회사들은 현물 시장에서 남아 있는 LNG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때문에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일부 국가는 에너지 배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국가가 석탄 화력 발전소로 눈길을 돌렸다.

태국 정부는 이달 석탄 화력발전소를

카타르산 LNG 80% 아시아로 태국 석탄 확대, 대만은 재가동 LNG 지정학 인한 한계 드러나

韓 정유·석화학계 가장 큰 타격 반도체·철강 압박... 원전 대응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도록 지시하고,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도 석탄 발전 비중을 크게 늘렸다. 대만은 LNG 공급 차질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함께 폐쇄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늘려 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LNG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LNG는 그동안 석탄보다 친환경적이고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환 연료'로 주목받았지만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특성상 지정학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가스관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가장 취약한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LNG는 물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에 유가 상승도 치명적이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곳은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동반 급등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반도체와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역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공정 특성상 유가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악재다. 이는 제조원가 구조 자체를 뒤흔들어 영업이익 방어선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업계는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0~40% 수준이다. 유가가 급등할 경우 항공사의 수익성에 곧바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한항공은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의 최대 50%에 대해 유가 헤지를 실행 중인 가운데 국제 유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진영 기자 mint@ 권태성 기자 tskwon@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생산비 전망 (단위: %)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별 국내 산업 생산비 상승률

시나리오	유가(배럴 당)	LNG 가격 상승률
단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3주 이내 종료	105~125달러	60~90% 상승
중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1~3개월	120~160달러	100~140% 상승
장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3개월 이상	150~180달러 (최대 200달러)	150~200% 상승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도시에 있는 카타르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라스라판(카타르)/로이터연합뉴스

### <호르무즈 해협>

## “3개월 봉쇄 땀 제조업 생산비 12% ↑”

### 산업공급망 시나리오

“유가 200弗·LNG값 200% 오르고 나프타·헬륨 등 공급망 연쇄 타격 에너지 관련 조기경보 체계 시급”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가 최대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넘어 석유 화학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뼈대가 되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복합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통합 공급망 관리와 수입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약 3주간 지속되는 단기 공급 충격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5~125달러, LNG 가격은 60~90% 상승해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5.4%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구조적 공급 충격'으로 악화하면 유가는 극단적인 경우 200달러를 돌파하고, LNG 가격은 150~200%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비 상승률은 최대 3.1%에 그치겠지만, 제조업은 최대 1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석탄 및 석유제품(83.0%), 전력·가스 및 증기(77.7%), 화학제품(14.8%), 비금속광물제품(12.0%), 1차 금속제품(8.9%)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위기가 과거와 달리 원자재 공급망 차질이라는 복합 충격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석유화학 밸류체인 최상류 원료인 나프타의 대중동 수입 의존도가 44.7%에 달하며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비료와 화학 원료로 쓰이는 무수 암모니아(anhydrous ammonia) 역시 42.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과 식각(부식을 이용해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 공정에 필수적인 특수 가스인 헬륨(중동 세계 수출 비중 24.3%)은 카타르 LNG 복합 생산 시설과 연동돼 있어 에너지 공급 차질이 곧바로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빙현지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과 원료 조달 다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중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료 조달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원만 바뀔 뿐, 중동 의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유·LNG와 더불어 나프타, 무수 암모니아, 헬륨 등 에너지 연계 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KB금융그룹 | 전반위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 중동 포성 커지자... 잘나가던 코스피, 급제동 걸렸다

### 161.81p 내린 5763.22

중동발 오일 쇼크가 코스피 상승 랠리에 급제동을 걸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위로 치솟으면서 연초인공지능(AI) 기대감으로 6000선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장을 마쳤다. 중동 전쟁 전 고점인 2월 27일(6244.13)과 비교하면 7.70% 하락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도 전날보다 3.84% 하락한 2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을 끌어올렸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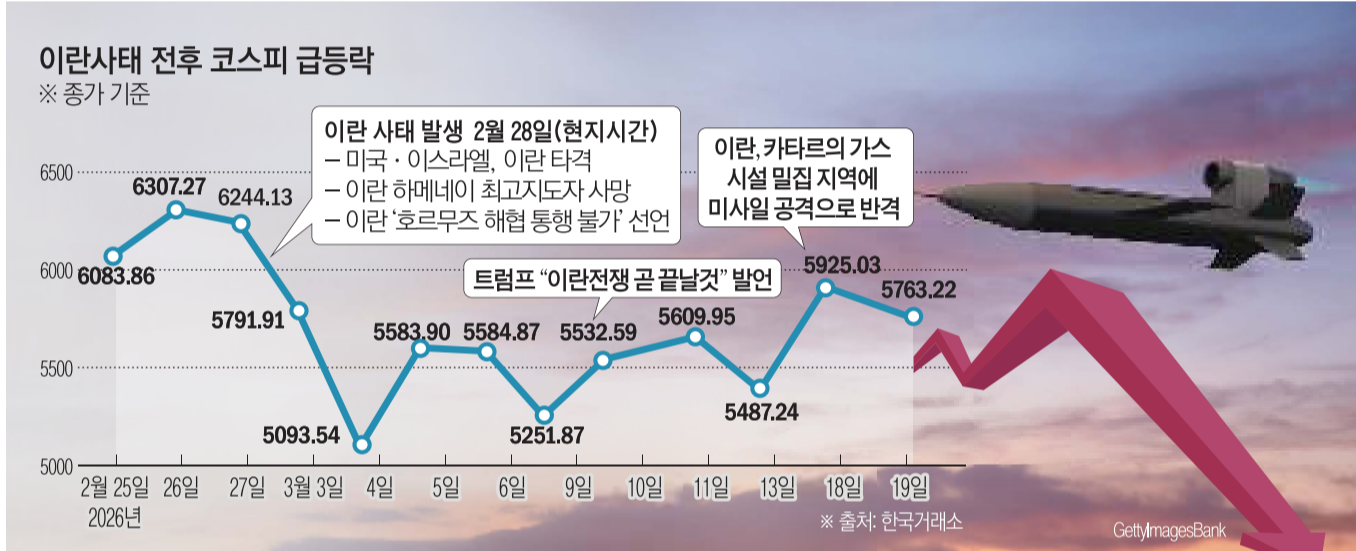
### 고유가·원화 약세·환차손 우려 외국인 이달 들어 15조 순매도 반도체 대형주 중심 차익실현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날뛰기' 스태그플레이션 부담도 커져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전쟁(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다. 원유 공급차질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국제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107.38달러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110달러대를 터치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장중 100달러를 웃돌았다. 유가 급등은 환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7.9원 오른 150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간 거래 장중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156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커졌다. 환차손 우려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연초 코스피를 끌어올린 동력은 AI였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 기대가 반도체 업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찍으며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넘겨 주간 거래를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와 환율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0.90포인트(1.79%) 내린 1143.48로 거래를 끝냈다. 반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7원 90전 오른 1501.0원에 마무리됐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황 개선으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는 1월 2일 4309.63에서 2월 27일 6244.13까지 약 45% 치솟았다. 불과 한 달여 만에 5000선을 넘어 6000선까지 돌파한 초고속 랠리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증시 흐름을 바꿨다. 성장 기대보다 고유가와 고환율 등이 더 강한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스피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급락과 반등을 반복했다. 2월 27일 6244.13이던 지수는 3월 4일 5093.54까

지 급락했고, 9일에는 5251.87, 10일에는 5532.59를 기록했다. 이후 17일 5640.48, 18일 5925.03으로 반등했지만 19일 다시 5700선대로 밀리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5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자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성 확대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3월 4일 80.37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에도 60~7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AI가 끌어올린 랠리가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라는 현실 변수와 충돌하면서 증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 격화 우려와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역외 롱플레이,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달라진 증시 기초체력 단기 종전만 조속 회복

### 2003년 이라크전 때와 비슷할 듯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유가 급등세가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에너지 쇼크 사례를 재조명하고 있다. 19일 삼성증권은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양측의 전력차를 금융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3년 3월 20일 시작돼 5월 1일 주요 전투가 종료되면서 약 42일간 지속된 미국의 이라크 2차 침공 사례에서 S&P500 지수는 초기 약 12일 동안 약 3%의 약세만을 보이고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쟁 등 지정학적 이벤트가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는 유가의 절대적 수치보다 고유가 기조의 '지속 기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가 상승이 단기 해프닝에 그칠 경우 물가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증시의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 증시에 큰 타격을 줬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통행이 재개되고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과거 중동 분쟁 사례들처럼 증시는 곧바로 복원력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번 조정 국면에서 코스피가 보여준 방어선은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도 달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하며 역대급 실적 경신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수개월간 고착화되지 않는다면 증시의 유동성 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선호를 지속하고, 조정 시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고유가 기간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100달러 이상 고유가가 몇달 지속되지 않으면 증시는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창석 기자 blue@

## 조선·방산·원전株 '강세' ... 항공·화학·증권은 '타격'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가가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I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가가 짓누르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업종별로 수혜와 피해가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AI 랠리가 미래 기대를 먹고 움직이는 반면, 유가 상승은 현재 비용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 서버,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수요를 키우는 장기 서사다. 반면 유가는 당장 물류비와 생산비, 전력비, 소비 여력을 흔든다.

고유가가 길어질수록 조선, 기계, 상사, 자본재, 에너지, 일부 운송 업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유 업종은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

### '고유가 장세' 수혜·피해 엇갈려 전력기기 등 대안에너지도 쏠려 내달부터 기업 실적 영향 줄 듯

진 확대 기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아시아 경제마진은 최근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항공유와 경유마진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실적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유사의 공급 물량까지 관리하기 시작해,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이익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유가 상승 속 대안에너지의 가치가 커진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에너지 안정을 위해 원전 이용률을 최대 80% 수준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번 에너지 충격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원전,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최근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급등 업종에서 일부 이탈하는 사이 조선, 방산, 원전 등 실적 전망이 살아있는 업종으로 이동했던 흐름에도 주목한다. 9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두산에너지(2020억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1370억원), 삼성중공업(1340억원) 등이 차지했다. 반대로 항공, 화학, 증권,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소비 관련 업종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은 타격이 가장 직접적이다. 최

근 글로벌 항공사들은 유가 급등에 따라 운임 인상, 실적 가이던스 철회, 감편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항공유가격이 열흘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달 들어 대한항공은 전날까지 주가가 9.25%, 아시아나항공 6.83%, 제주항공은 15.27% 하락했다. 다만 이들 업종은 유가에 즉각적으로 흔들리는 만큼, 향후 유가가 꺾일 경우 반등 탄력도 가장 클 수 있다는 평가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료비 급등, 환율 부담이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은 4월부터로 판단된다"며 "매출이 견조한 만큼 연료비가 고점을 형성했다는 컨센서스만 형성돼도 주가 반등 동력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사모대출 17조 훌쩍 넘어... 유동성·신용 리스크 동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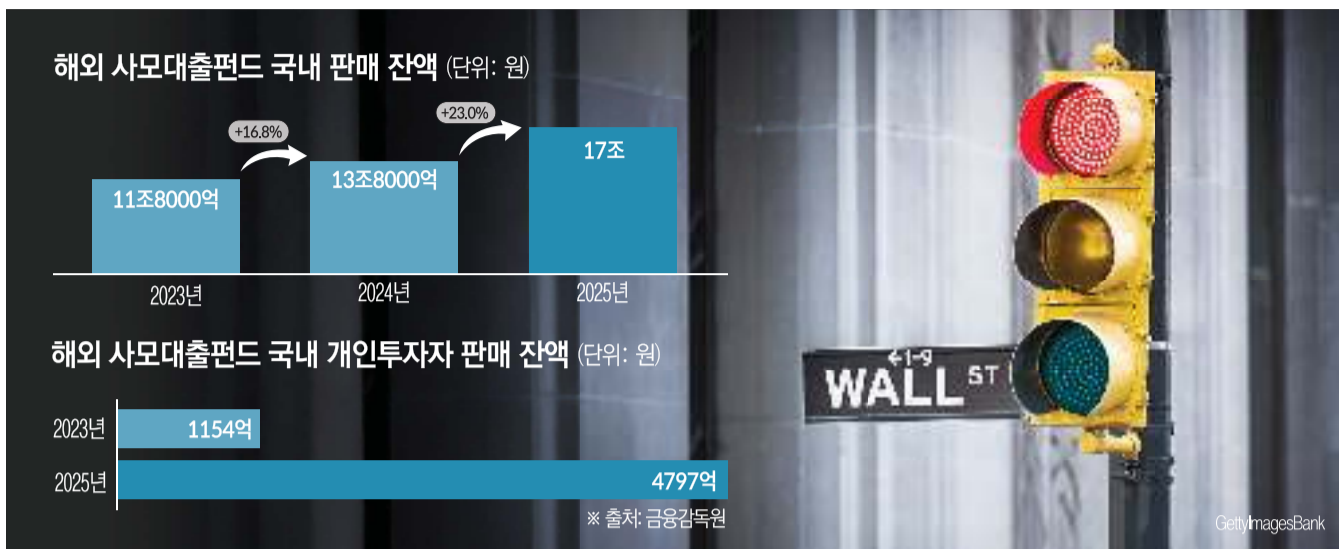
## ㉠ 국내 기관도 위기 확산

채권보다 금리 높고 안전해 각광  
다수 기관 자산 25% 이상 투자  
실태 파악 어려운 구조 불안 키워  
“안 보이는 부실 누적되는 구간  
리스크 대응 위해 선제적 관리”

연기금과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미국의 사모대출(Private Credit) 사태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사모대출을 포함한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수면 아래 감춰진 부실과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공제회는 현재 전체 투자자산의 약 25%가 사모대출로 구성돼 있다. 여러 다른 공제회들도 투자자산 내 사모대출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공제회의 사모대출 투자액은 기관별로 많게는 1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도 2019년 해외 사모대출 투자를 시작한 후 2024년 사모대출 투자 전담팀을 가동했다. 크레딧·부실자산펀드 부문을 신설하는 등 사모신용 투자를 강화해왔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의 사모대출 쏠림 현상은 한층 심화됐다. 전통적 채권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다 선순위 담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에서다. 그러나 최근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출채권마저 부실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2개 증권사 기준 해외 사모대출 펀드 국내 판매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공식된 펀드 형태에 한정된 수치다.

업계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직접 대출,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사채 인수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익스포저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투자 구조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 역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증권업계는 한층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모습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기존 포트

폴리오에 대해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사모대출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하면서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차환)이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 경색 조짐도 감지된다.

특히, 특히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집행된 약 8750억달러 규모의 사모대

출이 올해 말까지 연 9~12% 수준의 고금리로 리파이낸싱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차입 비용 급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실이 촉발될 수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사모대출은 가격이 매일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늦게 드러날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

다”라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실이 누적되는 구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불투명한 자산 평가와 제한된 공시구조 역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모대출 시장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국이 ‘사모’라는 특성 뒤에 가려진 실질 익스포저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기금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물러난 자리를 사모대출 펀드가 빠르게 메우는 과정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급팽창했고, 부작용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심사 기준이 상당히 허술해졌을 수 있다”면서 “시장 속도가 워낙 빨랐던 만큼 일부 자산에서 대출 심사 완화나 유동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유한새 기자 bird@

## 美사모신용 위기설에... 국내 크레딧시장 긴장

구조적 차이로 직접 충격 제한적  
“회사채 안정적이지만 대비 필요”

미국발 사모신용 시장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회사채 등 크레딧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할 경우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제기됐다.

19일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모신용 위기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파산과 금융경색을 불러왔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확산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즉, 지금은 고요하지만, 균열이 번지는 순간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크레딧시장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크레딧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안도 국면’이라기보다는 ‘지연된 반응’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크레딧스프레드는 위기 신호를 가장 늦게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현재의 안정세가 오히려 경계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채권시장은 국내나 환율시장보다 한 박

자 늦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금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번질 경우 시장 구조와 무관하게 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조적 차이로 인해 직접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 여전히 우세하다. 미국은 대출을 유동화해 펀드로 만들고 이를 다시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등 파생상품 구조가 발달해 있는 반면, 국내는 은행·제2금융권 중심의 단순대출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전이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재 iM증권 크레딧채권 연구원은 “사모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규제가 강해진 틈을 파고들어 급격히 팽창한 시장”이라며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대출 시스템이 견고해 동일한 방식의 충격 전이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기업 신용도에 미칠 영향도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IS실장은 “미국 사모시장과 국내 회사채 시장 간 직접 연결고리가 크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스프레드 확대나 기업 신용등급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은 대비할 시점’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시장은 충격이 본격화된 이후 반응하는 만큼 사전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현 채권전문기자 kimnh21c@



# AI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더 똑똑한 투자, 주파수와 함께!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 주식거래 수수료는 스마트금융센터(비대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ETF, ELW, ETN 포함)는 0.01%, 은행 채권 0.015%, 영업점 스마트금융센터 등 한 주식거래 0.5~0.4% + 35만원(거래금액별 차등)입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표 제24-04292호(2024.10.23~2027.12.31)

# 리사 수 “삼성과 훌륭한 논의”... PC·모바일까지 협력 확대

〈AMD 최고경영자〉

## 노태문 대표이사와의 회동

AI디바이스 생태계 확대 전망  
HBM4 우선공급사 협력 넘어  
디바이스 단말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AI동맹' 본격시동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AMD와 손잡고 협력 범위를 반도체에서 모바일·PC 등 디바이스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단말까지 연결되는 '엔드투엔드 AI 동맹'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19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약 1시간 회동하고 AI PC와 모바일 기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 CEO는 회동 직후 “훌륭한 논의였다”며 “AMD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 CEO는 “논의할 주제가 많다”며 “좋은 미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삼성전자는 김정현 모바일경험(MX)사업부 부사장이 직접 수 CEO를 맞이했다. 주요 사업부임원이 영접에 나선 점에서 협력 확대 논의의 무게감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업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양사가 PC와 태블릿을 포함한 AI 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반도체 중심 협력을 넘어 단말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AI 동맹' 구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DX 부문 AI 전략과도 맞물린다. 노 사장은 전날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혁신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리사 수 AMD CEO가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과 회동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사 수 AMD CEO, 삼성전자 회동 주요 발언

- 3월 18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 “삼성과 AMD는 AI 컴퓨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
  - “이번 협약으로 양사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
  - “AI 로드맵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토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3월 19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 “논의할 주제가 많다”, “미팅은 훌륭했다”
  - “우리는 매우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 리사 수 AMD CEO 향한 기대 효과

<b>삼성전자</b> 차세대 HBM 공급 및 파운드리(위탁생산) 선단 공정 협력 공급망 다변화 : 엔비디아-TSMC 연합에 대응하는 강력한 '메모리+파운드리' 우군 확보	<b>네이버</b> 하이퍼클로바X 구동을 위한 AMD GPU 최적화 인프라 구축 수익성 개선 : 고가 GPU 대체로 데이터센터 운영비 절감 및 초개인화 서비스 가속화
<b>업스테이지</b> 차세대 GPU(MI355) 도입 및 자체 LLM '솔라' 고도화 소버린 AI 주권 : 글로벌 표준 하드웨어 기반의 '독자 AI 모델' 구동 성능 및 효율성 검증	<b>한국 정부</b> AI 고속도로 구축 및 지역 산업 AX 지원, K-문샷 연계 인재 양성 및 공동 R&D 정책적 부스터 : 국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다양화 및 '시 3강' 도약 위한 연산 파워 확보

특히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에이전틱 AI폰'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 사장은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갤럭시 AI 기기를 2025년 4억 대에서 2026년 8억 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사 협력은 반도체 영역에서도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수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승지원에서 만찬을 갖고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참석했다.

전날 삼성전자가 평택사업장에서는 차세대 AI 메모리·컴퓨팅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의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으며, 차세대 GPU '인스틴트 MI455X'에 고대역폭 메모리(HBM4)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AI 데이터센터용 플랫폼 '헬리오스'와 EPYC 서버 CPU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DDR5 메모리 협력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결합한 토크 역량을 기반으로 AMD AI 로드맵 전반을 지원하고, 차세대 칩 위탁생산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업스테이지와 독자 AI 동맹 'GPU 1만장' 포털확장 시동

업스테이지, AMD GPU 도입하고 LLM 솔라·문서처리 AI 개발 가속 GPU 공급 발판 '다음' 인수 본격화

업스테이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배포 가속화와 한국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MD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단독 회동을 마친 뒤 “성 김(Sung Kim)은 훌륭하다.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우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업스테이지는 향후 1년간 단단계 로드맵에 따라 AMD 인스틴트(Instinct) MI355 그래픽처리 장치(GPU)를 도입하고, 자체 거대언어 모델(LLM) '솔라'와 문서처리 AI 솔루션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도 AMD GPU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소버린 AI 인프라 다양화에 함께 기여할 방침이다.

수 CEO는 “AMD 인스틴트 GPU와 오픈 소프트웨어 록엠(ROCm), 업스테이지의 전문성을 결합해 한국의 소버린 AI 역량을 높이고 AI 혁신 가속화에 필요한 성능, 효율성, 개방형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분야의 핵심 기업인 AMD와의 협력은 솔라 모델 고도화뿐 아니라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서도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



리사 수(오른쪽) AMD CEO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회동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업스테이지

대된다”고 말했다.

업스테이지에게는 AMD의 추가 투자 확대 문도 열렸다. 김 대표는 향후 AMD의 투자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더 검토한다”고 답했다. 별도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에 대해서 “AMD는 이미 우리 투자사”라고 했다.

이번 GPU 공급으로 포털사이트 다음 인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인수하면 대규모 GPU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인수 완수 후 하루 1조 토큰 처리를 목표로 하면 GPU 약 1만장이 필요하다”며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붙으면 (GPU) 수요가 100배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 인수 후 목표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네이버-다음의 양강 구도에서 나아가 네이버(NAVER)를 넘어서는 포털사이트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현재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 운영사인 AXZ 지분 100%를 카카오투에서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엔비디아 독주 깬 AMD, 韓 AI고속도로 깐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정부·기업·스타트업에 아우르는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단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한국 AI 공급망 전반과 접점을 넓히며 엔비디아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낼 변수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 CEO는 방한 기간 삼성전자, 네이버,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과 잇달아 회동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도 만나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AMD가 특정 기업이 아닌 한국 AI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와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과 파운드리 협력 확대를, 네이버와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인프라 최적화를 논의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고가의 엔비디아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센터 비용

AI 생태계 주요기업과 회동 이어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협력안 'AI 3강' 도약 위한 생태계 필요성 AMD가 국가 AIDC 채택 가능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카드다. 연산 인프라 안정성이 확보되면 모델 학습 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곧 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역시 AMD를 대형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HBM 중심 메모리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메모리·파운드리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가 본격화될 경우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스테이지와의 협력은 AMD의 전략이 대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사는 향후 1년간 AMD GPU를 활용해 자체 거대언어 모델(LLM) '솔라' 고도화에 나선다. 핵심 키워드는 '소버린(주권) AI'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인프라 구축이 경쟁력의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AMD의 개방형 생태계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업스테이지 사례는 한국형 AI 모델이 글로벌 표준 하드웨어 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관 협력도 병행된다. 수 CEO는 하수석과 만나 'AI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인재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생태계 확장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AMD GPU가 국가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가 강조했던 “우리만의 딥마인드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AMD라는 강력한 우군을 만나 실질적인 ‘연산 파워’를 얻게 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콘서트 왔다가 콘텐츠 관광... 서울 물들인 '보랏빛 특수'



숫자로 보는 'BTS노믹스' ※ 출처: 넷플릭스·증권가

**3년 9개월**  
오랜만의 완전체 컴백 기대감

**26만명**  
광화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예상 관람객

**1조7000억원+ α**  
경제적 효과

**600만장**  
5집 '아리랑' 앨범 판매량

스위프트노믹스와 유사한 'BTS노믹스' 양상



## K팝 '목적형 관광' 확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계기로 해외 팬들의 방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결합하는 '목적형 관광'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공연 자체가 여행의 주요 동기가 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존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명동, 홍대, 코엑스 등 주요 상권을 연계해 방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콘텐츠 중심의 이동 패턴이 강화하고 있다. K팝과 연계된 쇼핑, 체험, 먹거리 소비가 결합한 형태다. 이에 따라 일부 관광객은 공연 일정에 맞춰 체류 기간을 늘리고 있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21일 공연 전후로 짧게는 4

광화문·명동·홍대·코엑스 등 체류기간 늘려 상권연계 방문 공연·숙박·쇼핑·체험 패키지 다목적 아레나 인프라는 부족

박 5일에서 일주일가량 서울에 머무는 외국인 고객이 늘었다"며 "공연 자체가 관광 수요를 직접 유발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숙박·쇼핑·체험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늘리고 공연 연계 프로모션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반복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트렌드가 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파라다이스시티는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하는 숙박·미식·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선보인다. 이는 한국을 찾을 전 세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 시티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BTS THE CITY ARIRANG SEOUL)의 일환이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약 2주간 도시 곳곳을 BTS 관련 체험 테마로 꾸미고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다. 송례문, 남산서울타워 등 주요 랜드마크에선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된다.

음악과 미디어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와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는 설치 연출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CGV도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익스피어런스 인 시네마즈'를 22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한다. 신규 앨범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윗놀이와 투호 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 참여 이벤트로 구성된 팝업 공간이 마련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K팝 중심의 관광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슬기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콘서트는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과 지출 규모가 큰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특성이 있다"며 "MICE 관점에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형 관광은 콘텐츠 중심 이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관광객의 이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간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연을 계기로 광화문 일대가 새로운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 지문위원인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BTS 서사가 더해지면서 향후 이 일대 관광이 프리미엄 K팝 어트랙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팝 공연이 관광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 공연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국내는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로 공연 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다목적 아레나 등 공연 인프라를 확충해야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주 기자 ssp@

## "경제효과 상상 초월"... 팬덤 공략하는 유통가

면세점, 굿즈 강화·테마체험부스 백화점 팝업·체류형 콘텐츠 중심 글로벌 이미 타깃 전방위 마케팅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콘서트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팝업스토어와 굿즈 판매, 외국인 대상 혜택까지 전방위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팬덤 '아미(ARMY)'의 소비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선 면세업계가 BTS 마케팅에 가장 의욕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 기대에서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케이웨이브(K-WAVE) 존'을 조성하고 BTS 매거진, 봉제인형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 중이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선 K미식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롯데면세점도 명동본점 인근 광장에서 보라색 테마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리플릿을 지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멤버

유통업계 BTS 광화문 공연 대응 전략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인근 보라색 테마 체험부스	롯데백화점	롯데타운 외벽 보라색 연출, K-선물 큐레이션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케이웨이브 존' BTS 굿즈 판매	신세계백화점	본점서 'ARIRANG' 발매 기념 팝업
현대백화점	'서울 투어패스'에 쇼핑·체험 혜택	LF	헤지스 '스페이스H 서울' 외관 보라색 연출

십 골드 등급 업그레이드와 선불권을 제공한다.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선 31일까지 BTS 굿즈 프로모션을 펼친다.

백화점업계는 BTS 팝업스토어와 체류형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공연 전후 기간 명동 '롯데타운' 일대 건물 외벽을 BTS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연출한다. 또 외국인 고객 대상 할인 및 사은 혜택을 강화한다. 22일까지 매일 오후 6~10시 동안 본점과 명품관 에비뉴 엘 외벽을 보라색 조명으로 연출하는 '웰컴라이트'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명동 본점에서 운영한다. BTS 앨범과 공식 굿즈를 선보이며 사전 예약

제로 운영한다. 현대백화점은 공연 기간 전후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서울 투어패스'에 주요 점포 내 쇼핑 및 체험 혜택을 추가하고 인근 관광 시설 할인까지 연계해 체류형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는 현장 수요를 노리고 있다. CU는 광화문 인근 점포에 인력을 대거 배치,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0배까지 확보했다. GS25도 광화문 주요 점포에서 공연 전후 먹거리와 생수 등을 최소 10배 이상 늘려 운영한다.

패션업계도 합류했다. LF는 명동 헤지스 플래그십 스토어 '스페이스H 서울' 외관 조명을 22일까지 보라색으로 연출, 방문객 유입을 노린다. 문현호 기자 m2h@

## '완전체' 컴백 기대감에 엔터주도 '들쭉'

하이브 중등등 저점 대비 8.4% ↑ JYP·에스엠 등 상승하며 강보합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이 다가오면서 하이브를 필두로 침체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장보다 3.54% 내린 3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마감했지만 중등

전쟁 영향에 큰 조정을 받았던 4일 32만 7000원 대비 8.41%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등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32만원대까지 급락했던 하이브는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표와 21일 광화문 컴백 공연 기대감이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BTS 컴백이 엔터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BTS의 신보가 전주 406만장을 기록하며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다"며 "하이브의 2026년 매출액이 4조5985억원, 영업이익은 580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관론은 JYP, 에스엠,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사들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JYP는 4일 5만8100원에서 오늘(19일)까지 15.15% 오르며 6만6900원에 장을 마쳤다. 같은기간 에스엠(1.25%) 상승해 강보합세다.

박준형 SK증권 연구원은 "메가IP의 컴백은 엔터사 실적 개선세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창석 기자 blue@

# 밤샘영업에 무료 냉면... 전세계 아이 집결 광화문 '신바람'

〈BTS 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전광판에 BTS 컴백 공연 관련 광고가 보이고 있다. 뉴스

## K팝 특수에 도심 상권 '활기'

“매장에 좌석이 많은 편이라 공연 보러 온 분들께 냉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팬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계기도 되길 바랍니다.”

19일 찾아가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평양 냉면 전문점 관계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당일인 21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같이 말했다. 공연을 보러 온 팬들과 시민들이 식사할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전역에 'BTS 이코노미' 특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공연 당일 최대 26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서울에서 K푸드와 문화를 즐기고 있다.

광화문 근처에서 BTS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던 사라 톰슨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지난 주말에 한국에 도착했다. 톰슨 씨는 “BTS 공연뿐 아니라 멤버들이 다녀간 식당과 카페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연을 계기로 유입된 관광객은 단순 관람을 넘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숙박·외식·쇼핑 등 전방위 소비가 동반되면서 도심 상권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 식당, 재료 늘리고 영업시간 연장 실시간 중계·굿즈 증정 이벤트도

## 서울 먼저 온 외국인 K-문화 즐겨 공연 한편에 상권 매출 효과 톡톡

광화문 일대 상인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식당과 주점들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재료 확보를 늘리는 등 ‘공연 특수’ 준비에 나섰다.

서울시청 인근 한 돼지갈비 전문점은 매장을 BTS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꾸미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공연 당일 팬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재료 준비를 늘리고 기존 브레이크 타임도 없애고 운영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늘렸다.

이 식당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손님 증가 눈에 띄게 체감된다”며 “공연이 상권에 확실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장은 아예 밤샘营业을 선언했다. 공연장 인근 한 주점은 공연 전날부터

24시간 영업에 돌입하고 재료 물량을 1.5배로 늘렸다. 매장은 BTS 멤버 사진과 보라색 장식으로 꾸며졌고, 직원들은 보라색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손님을 맞는다. 공연 당일에는 실시간 중계와 함께 굿즈 증정,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연을 매개로 한 소비 유입이 단기간 '도시경제 이벤트'로 작동하면서, 공연 한편이 서울 도심 상권의 매출과 유동 인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강문정 기자 kangmj@



① 서울 명동 케이팝 굿즈숍에서 관광객들이 BTS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 ② 외국인 이 방탄소년단 멤버 뷁의 화보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8200명 현장 배치... 인파 관리 총력전

오세훈시장, 26만명 예상 현장점검 자치구·소방 등 역할분담 모니터링 오후 2시부터 해당역사 열차 무정차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을 이틀 앞두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정부와 서울시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행사 현장에 총 820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 인파 관리에 돌입했다. 행사 당일은 물론 전후일에 광화문 일대의 도심 교통 통제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사 당일인 21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 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 발령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를 전담하고 소방 당국은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신속한 구조 현장을 지킨다. 행사 직전인 19일과 20일에는 민·관 합동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현장을 사전 점검하며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행사 점검 회의를 열고 준비 태세를 갖췄다. 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도 대폭 총원대 총 82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방 등 공공 인력 3400여 명과 주최 측 인력 4800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102대와 인력 803명을 배치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통해 타 시·도 구급차 20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한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 도심 교통 통제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20일 밤 9시부터 22일 새벽 6시까지 세종대로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되며 21일에는 사직로(오후 4~11시)와 새문안로(오후 7~11시)도 추가로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이 구간을 지나 86개 시내버스 노선은 통제 시간에 맞춰 우회 운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사장 반경 1km 내 '따릉이' 58곳과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역도 전면 중단된다.

지하철 무정차도 시행한다. 21일 새벽 5시부터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의 일부 출입구가 조기 폐쇄된다. 본격적으로 인파가 밀집하는 오후 2~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해당 3개 역사 출입구를 전면 폐쇄하고, 모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대신 관람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밤 9시부터 2·3·5호선에 텅 빈 임시열차 12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노화 인자 타겟팅, 최초의 세노문™

# 안티에이징 효과를 즉각적으로 앞당기다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6세대

19년간 1위, No.1 안티에이징의 즉각적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 IOPE

1) AP 최초 2), 3) '06~'25 아이오페 브랜드 크림 카테고리 자사 매출 기준

구매 문의 | 080-023-5454 /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IOPE 공식 네이비스트어 / 전국 아리따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 채용 공고에 연봉 공개 추진... 李 “AI 시대, 로봇세 검토”

李, 경사노위 출범 토론회 주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 양보하면 기업이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정규직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채용 공고에 연봉을 공개하는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놓으면 그다음부터 꿈쩍을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 아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최대한 하청을 주고 사내 하청을 만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되기가 어려우니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해법 중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

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림돌로는 ‘불신’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점이 문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이날 제1기 경사노위 출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세종=김지영 연구정책전문기자 jye@

## 지난해 24만쌍 결혼... 연상연하 커플 20%

혼인 건수 작년까지 3년째 증가 이혼, 남녀 모두 60세 이상 최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건으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의 자녀를 뜻하는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 적령기에 접어들어 데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린 게 영향을 끼쳤다.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혼인한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만8000건(8.1%)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이후 2023년(19만4000건) 증가 전환한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혼인 건수 증가 폭은 8.1%로 역대 최대였던 2024년(14.8%)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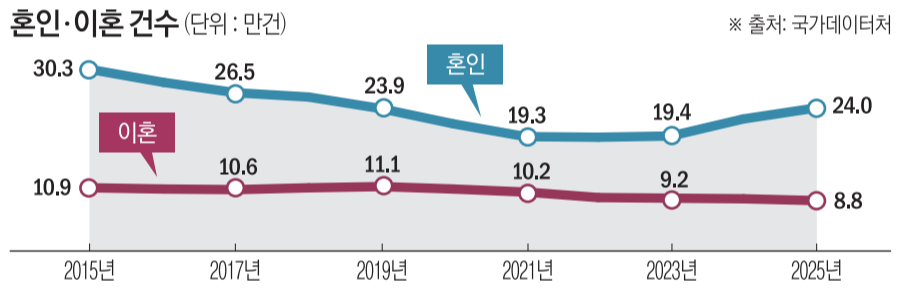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전년 대비 남자는 유

사했고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9만9000건, 41.1%)이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4만7000건, 19.6%), 20대 후반(4만2000건, 17.7%) 순이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9만5000건, 39.7%), 20대 후반(6만9000건, 28.8%), 30대 후반(3만2000건, 13.3%) 순으로 많았다.

초혼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0%,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20.2%, 동갑은



16.7%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나 동갑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9세, 여자 47.5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4세 여자는 0.3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3.3% 감소(3000건)했다. 2020년부터 6년 연속 감소세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1.0세, 여자 47.7세로 남녀 모

두 전년보다 0.6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2만 건, 23.1%), 50대 초반(1만4000건, 15.9%), 40대 후반(1만4000건, 15.4%) 순으로 많았다. 여자는 60세 이상(1만5000건, 16.6%), 40대 초반(1만4000건, 16.2%), 40대 후반(1만4000건, 15.6%) 순이었다.

세종=조아라 기자 abc@

## 롯데·해태·오리온·빙그레 등 가격 인하

“정부 물가안정 기조 동참”

▶먼저 계속

롯데웰푸드는 비스킷 제품 ‘엄마손과이(127g·254g)’를 2.9%, ‘청포도 캔디’, ‘복숭아 캔디’ 등 캔디 3종 가격을 각각 4% 인하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계란과자 베베핀’과 ‘롤리폴리’ 등 비스킷 제품 2종 가격을 평균 5.0%, 오리온도 ‘베베’, ‘오리온웨하스’, ‘바이오캔디’ 가격을 평균 5.5% 내린다.

빙과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 빙그레 등 2개 업체가 아이스크림 8종 가격을 평균 5.4~6.0% 인하한다. 빙그레 관계자는 “국제 정세 불안과 내수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물가안

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산빵 업체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 롯데웰푸드와 삼립은 총 8개 제품 가격을 평균 8.2~13.4% 내린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농가의 웃돈 요구 등을 파악 중이며, 돼지고기는 육가공업체 재고 및 가격 인위적 상승 여부를 조사한다. 담합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한다.

생활용품은 원자재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한다. 의약품은 가격 인상 사전 공유 체계 구축과 약국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생리용품은 공공시설 비치 확대를 통해 유통 다변화와 가격안정 효과를 유도한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탈세” 국세청, 자금조달 조사 예고

국세청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부조사에 나선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공정 대출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작년 지식서비스 적자 역대 4번째 많아

AI·OTT 해외 구독 확대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적자 규모가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K콘텐츠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동영상 스트리밍(OTT) 등 해외 서비스 구독이 크게 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호조 속에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R&D) 해외 발주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적자 규모는 10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도(-72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한은이 통계를 편제한 2010년 이후 역대 4번째 적자다.

국내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줄곧 적자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박성근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08억1000억 달러)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수지는 지식서비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 지식서비스 수출 규모는 414억6000만달러, 수입은 51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세부부문별로는 정보·통신(51억9000만달러)과 문화·여가(9억8000만달러) 서비스가 흑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 서비스는 국내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등에 해외 빅테크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앱)이 탑재되는 경우가 늘면서 사상 최대치인 51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문화·여가 서비스는 K팝 공연과 전시 수출이 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전문·사업(-71억5000만달러→93억9000만달러)과 지식재산권 사용료(-41억1000만달러→70억3000만달러) 서비스 적자폭은 예년보다 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 Viva BRAVO

2nd Concert

2026. 04. 11~12(토, 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미스트롯  
예약 바로가기

신유/김수찬 : 16:30  
미스트롯 : 13:00 & 19:30



신유, 김수찬  
예약 바로가기

신유·김수찬·정서주·배아현·오유진  
미스김·나영·김소연·정슬

티켓링크 고객센터 문의 : 1588-7890

비바브라보 검색



# 마이크론, 매출 3배 폭증... “내년 7세대 HBM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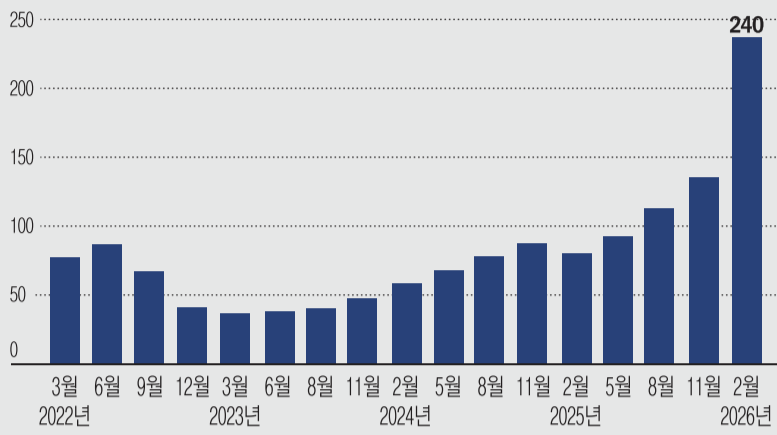
2분기 실적 238.6억 弗 사상 최고  
3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웃돌아  
대규모 설비 투자액은 부담으로  
시간외 거래서 주가 4%대 하락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폭증을 등에 업고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E’ 양산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분기(작년 12월~올해 2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세 배 늘어난 238억6000만 달러(약 3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주당순이익(EPS)도 12.20달러로 시장 예상치



마이크론 분기 매출 (단위: 억달러) \* 출처: 마이크론



(9.3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향후 실적 전망도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 마이크론은 회계 3분기(3~5월) 매출 전망치를 335억달러 전후로 제시했다. 월가 평균 예상치는 237억달러였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

다. HBM은 엔비디아 등이 다루는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필수적이다. 산재이 메트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당사는 AI 수요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

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인 HBM 4E 양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메모리 업계의 경쟁 구도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이날 “엔비디아의 ‘베라 루

빈’을 위한 HBM4의 양산이 회계 1분기에 시작됐다”며 “차세대 HBM4E 제품은 내년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2028년 출시될 차세대 ‘페인만’ GPU에 맞춤형 HBM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여기에 어느 회사 제품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마이크론은 이번 회계연도 설비 투자액이 2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224억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이막대한 지출은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특히 AI 컴퓨팅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부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마이크론의 매출은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마이크론 주식 매도에 나섰다. 마이크론 주가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4%대로 급락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트럼프 “원유수입국이 호르무즈 안보 책임져라”

중동 의존 높은 韓·中·日 겨냥  
동맹국 파병 압박 강화 취지 해석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용헬기에 탑승하기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이해 당사국이 직접 나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결성 무산 이후 상대적으로 중동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중국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테러국이란 잔재를 제거해버린 다음, 그

해협의 안전을 이해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놓고 이 협업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협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번 게시물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에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유럽 주요 동맹국이 잇따라 반대 견해를 밝힌 가운데 나왔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이해 당사자들 다시 거론하며 파병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함께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최악의 타이밍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中, 일대일로에 2135억 弗 투입 사상 최대

지난해 에너지 분야만 939억 弗

지난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투자·건설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대와 중국 푸단대가 지난해 말 기준 일대일로와 관련해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50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투자금과 건설 계약금 총액은 2135억달러(약 320조원)로 집계됐다. 2013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에너지 분야가 939억달러로 전체 4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석유와 가스

가 715억달러를 차지해 직전 최고였던 2024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미와 중동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18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이 부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투자가 전체 약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사실상 폐쇄되는 등 미국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중국은 투자 확대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면서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메리트C 브랜드 내 최고 함량 제품

# 메리트C

## 메리트C&D 듀얼 메가

영국산 비타민 C 3,000 mg

스위스산 비타민 D 5,000 IU

\*고함량 비타민 C, D 일일 권장량 성도 기준 대비

www.qualityoflife.com  
Quali is a trademark of DSM

www.qualityoflife.com  
Quali is a trademark of DSM

메리트C  
메리트C&D 듀얼 메가  
비타민C 3000mg +  
비타민D 5000IU

메리트C  
메리트C&D 듀얼 메가  
비타민C 3000mg +  
비타민D 5000IU

메리트C  
메리트C  
메리트C

제조원 : 휴온스 푸디언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광고심의회 심의번호 : 240511320

휴온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온스 제품은 휴온스몰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벼랑끝 기업, 정치권에 SOS/

# 석화 “나프타 값 2배 뛰어 정부 차원 비축 장치 필요”

# 철강 빅2 “산업 붕괴 직전 전기료 지역 차등제 도입”



나프타 수급 리스크 현실화 ※ 출처: 각사	
여천NCC (2026. 3. 4)	- 불가항력 선언 - 3월 4일부터 모든 생산시설 최소한의 용량으로 운영
롯데케미칼 (2026. 3. 10)	- 불가항력 가능성 사전 통지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원료 조달 및 제품 운송 차질
한화솔루션 (2026. 3. 10)	- 불가항력 가능성 사전 통지 - 폴리올레핀(PO) 제품 대상 “주문 물량 대응 어려움 가능성” 사전 안내
LG화학 (2026. 3. 11)	- 불가항력 가능성 사전 통지 - DOTP 등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 공급 영향 가능성 고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동 정세 악화로 촉발된 원유 공급 불안이나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직결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호소했다.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충격’에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현재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발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간담회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석화 업계는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속에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를 시작으로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국내 석화사들이 고객사 상대로 ‘불가항력’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나프타 ‘물량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배용재 여천NCC 전무는 “나프타 물량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이 막히면서 가격을 떠나야 나프타를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동시에 “전쟁

전 t(톤)당 600달러 수준이던 나프타 가격이 11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다음 달 손익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정중은 LG화학 상무는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는 저장탱크가 따로 있어 정부 차원의 비축 물량이 있는데 나프타는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나프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전

### 을지로위 만나 대책 논의

### 나프타 물량 70%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재료값 급등에도 공장 가동 위해 감수 섰다...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쟁 종료 이후에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전방 산업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플라스틱 업계는 “원재료비가 생산원가의 80%를 차지하는데 원가 급등은 반영되지 않고 납품 단가는 그대로여서 ‘샌드위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구조가 지속하면 중소기업부터 무너지고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과 같은 긴급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을 지키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iy@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포스코노동조합

국내 철강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뜻을 모은 것으로 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 건 사상 처음이다.

19일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첫 공동행동

### 산업용 전기료 3년간 80% 가까이 올라 종일 가동에 시간대별 차등화 효과 미비 K스틸법 시행령 손질로 실질 지원해야

소속 현대제철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조는 “양대 노총이라는 조직적 경계도, 업계 1·2위라는 기업 간 경쟁 논리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 철강 노동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위기로 인한 유가·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철강노조는 ‘산업의 쌀’인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력 소비가 절대적인 산업 특성상 막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속된다면 국가 안보 산업으로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뒷받침할 확실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80% 가까이 오르며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비용 압박은 생산 축소와 공장 폐쇄로 이어지며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부담을 전가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는 높이는 게 골자다. 그러나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철강업 특성상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청 기업에 한해 6개월간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산업 현장에선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송재만 현대제철 지회장은 “포항 공장 기준으로 해당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 전기요금이익 약 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특히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대해선 인허가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유럽의 경제 불복,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한국은 무자비하게 당하고만 있다”면서 “지난해 말 ‘K스틸법’이 통과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S램 탑재... 삼성전자 ‘화색’

### SK하이닉스 관련 기술 초기 단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잇달아 S램(SRAM)을 언급하면서 관련 생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기존 D램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메모리 S램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램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활용 범위와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S램은 D램 대비 접근 지연이 적고 병목 현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조 단가가 높고 그동안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내 캐시 메모리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AI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론은 18일(현지시간)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S램과 D램의 관계를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언어처리장치(LPU) 등 새로운 아키텍처에서 S램 사용 확대가 D램 수요를 잠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라며 “새로운 아키텍처가 AI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전체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진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역시 16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서 공개한 ‘그록’을 통해

S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칩은 삼성 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데 약 500MB 용량과 150TB/s 수준의 대역폭을 갖춘 S램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S램 기반 L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반 가속기가 결합하는 구조는 AI 인프라 확장과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S램 생산 역량을 확보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S램 회로 및 로직 설계 인력 채용을 진행하는 등 기술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 SID 석학회원에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성과 인정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청(사진) 사장이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펠로우(석학회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SID는 매년 전체 회원의 0.1% 이내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인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펠로우로 선임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스플레이 학회다.

SID는 이 사장 선임 배경에 “세계 최초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지속 가능성 기반 디스플레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992년 삼성에 입사한 포스텍 화학공학박사 출신 기술 전문가다.

2012년 패널 개발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갤럭시 S 시리즈와 플렉시블 OLED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2019년 세계 최초 폴더블 OLED 양산 기반을 마련하며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창희 부사장은 SID가 수여하는 ‘잔 라크만(Jan Rajchman)’ 상을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성능·주행 편의성 다 갖췄다... 카이엔 EV, 국내 첫 공개

**포르쉐, 한국 시장 공략 박차**  
제로백 2.5초·최고 1156마력  
하반기 출시... 오프로드도 강화  
韓 판매 전기차엔 K배터리 탑재  
국내 전용 파나메라 출시 앞뒤

포르쉐가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포르쉐 특유의 카이엔 헤리티지를 계승한 모델로 일상 속 압도적인 주행감을 살리는 것은 물론 오프로드 감성까지 더했다. 올해 포르쉐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한 국내 시장에 내연기관부터 순수전기차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크리스티아네 초른 포르쉐 AG 해외 신시장 총괄은 19일 서울 광진구 PIE Factory에서 열린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역동적인 성장과 함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은 포르쉐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현재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품, 서비스, 개인화 등 고객 경험 전반에 걸친 접근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카이엔 일렉트릭은 포르쉐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Pie factory에서 크리스티아네 초른(왼쪽) 포르쉐 AG 해외 신시장 총괄, 마티아스 부세 대표이사기 카이엔 일렉트릭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대표 SUV 카이엔을 기반으로 개발된 순수 전기 모델이다. 터보와 기본형, 카이엔 S 일렉트릭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1156마력, 최대토크 153.0kg·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5초 만에 도달한다. 최대 400킬로와트(kW)급 고속충전을 지원해 장거리 주행 편의성을 확보했으며,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다목적 성능을 갖췄다.

포르쉐는 올해도 내연기관과 전동화

모델을 병행하는 균형 전략을 유지한다. 상반기에는 신형 911 터보 S와 마칸 GTs를, 하반기에는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와 카이엔 일렉트릭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 고객만을 위한 한정 모델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도 함께 선보인다.

공급망과 인프라도 확대한다. 포르쉐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순수 전기차에 국내 제조사의 배터리 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포르쉐 센터 제주를

시작으로 기존 일산 센터를 브랜드 체험형 공간인 '데스티네이션 포르쉐'로 전환하고, 양재·인천·영등포 등 주요 거점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포르쉐 내부에서도 한국 시장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포르쉐 해외 신시장 내 한국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5년 19%로 확대됐으며 글로벌 판매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내부.



포르쉐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지난해 국내 판매 역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만746대를 기록하며 설립 이후 두 번째로 연간 1만 대를 넘어섰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한국 고객 수요에 맞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브랜드 경험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가치 중심 성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chaebi@

## 포스코퓨처엠, 美물튼과 MOU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물튼과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연구소장과 케빈 부쉬 물튼 최고경영책임자(CEO), 캡립 보이드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의 음극재 기술과 물튼의 메탄가스를 활용한 흑연 생산 기술을 결합해 원료 공급망을 강화한다. 물튼은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생산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자회사 퓨처그래프를 통해 구형흑연으로 가공 후 세종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탄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흑연은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 대비 금속 불순물 함량이 낮아 정제 공정을 축소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또 메탄가스 열분해 시 발생하는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활용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홍영준 소장은 "기존에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흑연에 의존해 왔으나 양사가 보유한 원료·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핵심 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원료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 차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음극재 원료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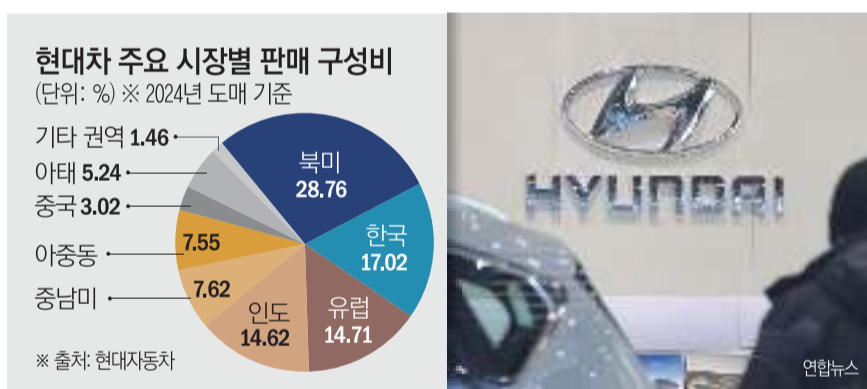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 현대차, 베트남 엔진법인 편입... '亞 생산축' 확장

**동남아 車시장 핵심... 현지화 속도  
조립 넘어 핵심 부품 '엔진' 생산  
글로벌 공급망 유연한 구조 재편**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이어 베트남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아시아 생산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중심의 현지화 전략과 병행해 인도·동남아를 잇는 '제2 생산벨트'를 구축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현대차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베트남 엔진 생산법인 'Hyundai Thanh Cong Vietnam Engine Manufacturing' (HTEMV)을 신규연결회사로 편입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완성차 조립을 넘어 핵심 부품인 엔진 생산까지 내재화하며 현지 생산 기



반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자동차 시장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엔진법인 편입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완성차 조립과 엔진 생산을 묶는 구조를 갖추면서 현지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탄공그룹과 베트남 닌빈성에 생산 합작법인 'HTMV'를 설립한 데 이어 2022년 HTMV 2공장을 준공하는 등 아세안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도에서도 생산 확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2024년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 현지 사업 기반을 강화했고 크레타EV 출시와 푸네 공장 가동을 통

해 전동화 생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핵심 생산 거점이자 내수 시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미국과 아시아를 축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용 공장 가동을 통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생산망을 확장하며 지역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전략이 '다중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와 동남아를 새로운 생산 축으로 키우는 흐름"이라며 "현대차의 글로벌 공급망이 보다 유연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향후 전동화와 부품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아시아 생산벨트 구축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조립을 넘어 핵심 부품 생산까지 현지화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생산 지형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해킹 숨기면 과태료, 공개 팬 기업 위기... "자발적 공개 유인책 필요"

**전문가들, 토론회서 해법 모색**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은 폐 제조: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

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침해사고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평판 하락, 이용자 이탈, 주가 하락, 집단 소송 가능성, 막대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비용 등이다. 신고 지연 과태료보다 공개에 따른 비용이 훨씬 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축소가 사실상 합리적 선택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사태에서 문제 진단부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해킹 은폐가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싼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침해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한 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네트

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지침(NIS2)은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초기 통보, 72시간 이내에 상세 보고를 요구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2% 혹은 1000만 유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법학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이 과징금 혜택을 보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침해 사고 예방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선 증거 보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 “AI 고속도로 구축... 의료서비스 소외 없게 해야”

## 메디컬 코리아 개막

정은경 장관 “헬스케어 혁신해야” 46명 연사 참여... 8개 세션 진행 AI 기반 생산성 혁신 등 주제 논의 의료기관 해외 진출 미팅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메디컬 코리아 2026'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r)'를 주제로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린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 기술이 촉발하는 헬스케어 혁신을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AI) 시대에 의료산업이 맞이한 변화를 확인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6’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은 의료 서비스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보건의료와 AI 기술의 선도 국가로서 AI 기반 의료 실현을 추진하고 있던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기관과의 데이터를 교류하고 AI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소득, 연령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 분야의 혁신성과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

라고 설명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대표 콘퍼런스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올해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를 주제로 총 8개 세션을 통해 46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한다. AI가 진단·치료, 헬스케어 산업, 의료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의료 생산성 혁신 △항노화·재생의료 △의료 해외 진출 전략 등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된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메디컬 코리아 2026은 AI가 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미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콘퍼런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행사의 기조강연자로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에서 헬스케어 정보기술(IT) 분야 혁신을 이끈 리더 에드워드 막스

(Edward Marx) 막스 어드바이저리 최고경영자(CEO)가 나섰다. 그는 “AI 기술은 헬스케어 분야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 상담 수요 가운데 85%는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우수한 도구를 활용하면 의료 생태계 전반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이 ‘메디컬코리아: 전 세계인의 삶 속에 새겨진 신뢰의 이름’을 주제로 한국 국제의료 사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

및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도 열렸다. 원광대병원과 한양대국제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바른눈안과의원, 와우보스,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기획관리 이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등 17개 단체·개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사 기간에는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됐다. 미국·일본·카자흐스탄 등 19개국 38개 바이어와 국내 의료기관 및 기업 약 220개사가 참여해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667건의 상담을 통해 45건의 업무협약(MOU)과 약 317만달러(4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된 만큼 올해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진행된다. 정 장관은 친부령 직피드수령 몽골 보건부 장관과 만나 국비 환자 송출, 의료인 연수,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을 논의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와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재활의료 협력과 의료기기 공급망 안정화, 의료인 교육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평균 연봉 1억1400만원

2021년부터 연평균 10% 상승 성과급, 연봉 50%... 업계 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창립 이후 역대 최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제15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보수는 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7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4% 증가할 수 있다. 연평균 약 10%씩 연봉이 오른 셈이다. 이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 기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평균 연령이 약 30세 수준이고 2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연차 대비 보상 수

준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수 수준은 업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 성과급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 상향선인 연봉의 50%로 지급했다. OPI는 삼성그룹의 성과급

제도도 직전년도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개인 연봉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2조 원 돌파와 연간 주주 6조원 달성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금성 복리후생도 눈에 띈다. 개인연금 지원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직원 1

인당 연간 약 3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개인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1대1로 납입하는 구조로 직원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직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또 장거리 거주 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내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내에는 가정의학과와 물리치료실, 근골격계 치료센터, 심리상담 시설 등이 마련돼 있고 진료와 처방약이 무상 제공된다.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중증 질환 지원 등 의료 복지도 포함된다. 피트니스 센터는 1983㎡(약 600평) 규모로 신라호텔 출신의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PT와 필라테스 레슨을 제공한다. 사내에 입점한 업체들은 피부관리샵 40%, 미용실 30%, 베이커리 15%, 유명 카페 30% 등 직원 특별 할인 이점이 가능하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월터 A 오렌스타인(왼쪽)과 리처드 수리 DCVMN 최고경영자가 '2026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사 국제백신연구소 을 박만훈상 수상자 공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는 ‘2026 박만훈상’ 수상자로 미국의 백신 정책 권위자 월터 A. 오렌스타인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DCVMN)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박만훈 부회장 타계 5주기를 기념해 내달 23일 개최된다. 월터 A. 오렌스타인 교수는 1988~200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가 면역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아 미국 아동 예방 접종률을 높였다. 이에 토착 홍역 전파가 사실상 사라지고 백신 예방 가능 질환의 발생률을 백신 도입 이전 대비 90~99% 이상 감소하게 하는 성과를 이뤘다. 현재 예모리대학교 명예 교수로 백신 정책 전문가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단체 수상자인 DCVMN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개발도상국 백신생산 기업 네트워크다. 2000년 설립돼 백신 생산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17개국 45개 이상의 백신 제조사가 DCVMN에 참여해 전 세계 약 170개국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잇몸 질환, 식도·대장암까지 유발 가능성... “올바른 칫솔질 중요”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행사 3회 칫솔질·연 2회 스케일링 제안

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잇몸 관리 수칙을 설명했다. 구강은 식도와 직접 연결된 통로인 만큼 구강 내 미생물 변화와 만성 염증은 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강 건강과 식도암의 연관성은 △치아 상실이 있는 경우 약 16% △잇몸병이 있는 경우 약 10% 높았다. 이 외에도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취침 전 칫솔질 부족 △치간 세정 도구 미사용 등 불량한 습관 역시 식도암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박재용 중앙대의대소화기내과 교수

는 “치아 상실로 씹는 기능이 약화하고 식습관에 변화가 일어나 전신 건강까지 악화하게 된다”라며 “불량한 위생 습관이 플라크 축적과 염증 악화로 발암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잇몸병의 원인균인 ‘포스박테리움 뉴클레아툼’ 중에서도 ‘아중 에니멀리스 C 2’란 세균이 대장까지 도달해 대장암을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국중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화학교실 교수는 “올바른 칫솔질이 잇몸병은 물론 대장암을 포함해 다양한 전신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이 취약한 암 환자들은 특히 구강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해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며, 기초체력이 떨어져 구강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쉬워진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잇몸관리와 소화기암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잇몸도 소화기 건강도 3.2.4 수칙’을 제안했다. 하루 3회 식후 칫솔질로 치태 생성을 막고 구강 내 미생물 양을 줄이며, 연 2회 스케일링으로 구강 검진과 잇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치아 사이 치태를 칫솔이나 치간 칫솔 등 보조기구로 꼼꼼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성주 기자 hsj@

# 유니클로, 1조 클럽 복귀... SPA브랜드 파워 '건고'

**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⑥ 유니클로 <끝>

글로벌 SPA(제조·유통 일원화)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해 국내에서 연 매출 1조원을 회복했다. 유니클로 자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해 두 자릿수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업황 침체 속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SPA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요인으로는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과 효율화 전략이 꼽힌다.

19일 유니클로 운영사에프알엘코리아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4년 9월~2025년 8월) 매출은 1조3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04억원으로 81.6% 늘어났다. 한국 SPA 시장을 개척한 유니클로는 2005년 국내 론칭 이후 승승장구하며 '노재팬'(No Japan·일본제품불매운동) 전까지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2019년 매출 1조378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해 전국적인 노재팬 기류와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며 2020년 매출이 6298억원까지 급감했고, 영업손실도 883억원

작년 영업의 전년보다 81.6%↑ 노재팬 이전 전성기 수준 회복 히트텍·에어리즘 '브랜드 파워' 경쟁사 대비 높은 품질도 강점 하반기엔 명동 상권 복귀 채비

에 달했다. 이후 차츰 다시 매출을 늘렸고 지난해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유니클로의 위기 극복 해법은 브랜드 정체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효율화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성장 요인으로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매장 운영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꼽았다.

최대 강점은 '브랜드 파워'다. 고유의 세련된 실루엣에 기능성과 활용성을 갖춘 제품이 특징으로, 개발 역량이 특히 두드러진다. 겨울철 발열 내의 대명사 '히트텍', 여름 대표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은 스테디셀러로, 유니클로뿐 아니라 SPA 업계 전체 트렌드를 이끌었다. 최근엔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적용한 'UV 프로텍션' 제품군도 강화하며 새로운 기능성 의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또 다른 강점은 타 SPA 브



사진제공 유니클로



유니클로 개요

※ 출처: 유니클로

<b>브랜드 철학</b>	옷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한다는 '라이프웨어'
<b>2025년 매출</b>	1조3524억원(회계연도 기준)
<b>매장 수</b>	129개
<b>2025년 매출 (회계연도)</b>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및 매장 운영, 젊은 세대 대상 SNS 마케팅

랜드 대비 높은 '품질'이다. 이는 꾸준한 투자에서 비롯됐다.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은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진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원단 개발, 워싱, 핏 등 데님 전담 전문 시설로 제품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글로벌 SPA 브랜드 강점을 살려, 전세계 2400여개 매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초대형 물량을 확보, 단가 협상력을 높였다.

브랜드 파워 기반의 효율화 작업은 유니클로의 부활을 이끈 원동력이다. 특히 점포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 2018년 180

개에 이른 매장은 현재 129개로 줄었다. 팬데믹 기간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상권 위주로 출점 전략을 재설계했다. 규모 확장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어드는 매장 수에도 고객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올해 하반기엔 글로벌 고객과 상징성을 고려해 '명동 상권 복귀'를 준비 중이다.

패션업계의 최대 난제인 '재고관리' 방식도 손봤다. 계절 변화 맞춤형 상품 구성과 전략 상품 중심의 마케팅이 핵심이다.

점점 여름이 길어지는 국내 기후에 맞춰 여름 상품 판매 기간을 늘리고, 에어리즘·히트텍 등 계절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마케팅도 기존 강점인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지속하되 크리에이터 협업도 늘려 젊은 고객층의 호응을 얻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원부자재 조달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품질과 가격의 균형을 맞춘 제품을 선보인다"며 "제품뿐 아니라 매장과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접점에서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



### 보랏빛 물결인 롯데 K팝 팬에 '환영 인사'

롯데백화점이 22일까지 명동 본점과 에비뉴엘 외벽에 화려한 조명을 밝히는 '웰컴라이트(Welcome Light)'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 K팝(K-POP) 팬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21일은 11시까지) 보라색 배경에 붉은색과 흰색 레이저가 어우러진 특별한 야경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 6연임 성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주춤 패션은 '올블랙 스타일링'

프로퍼티 21개 운영 호텔 성장 "올해 실질적 성장 재도약할 것"



명하며 사업 부문별 방향성도 제시했다. 호텔 부문은 2014년 신라스테이를 오픈한 이후 현재 21개 프 로퍼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다.

사내이사 6연임에 성공한 이부진(사진) 호텔신라 사장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과 재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장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실질적 성장과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총에선 △제53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네 가지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이 사장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낮은 배당 성향과 추가 부진을 이유로 주주들의 반대 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이 사장의 6연임을 다룬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3년 더 호텔신라를 이끌게 됐다.

이 사장은 경영 실적과 향후 전략을 설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호텔 사업 확장,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주총 직후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어 지배구조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매년 화제를 모으는 이 사장의 주춤 패션은 올해도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올블랙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끌었다. 블랙 테일러드 재킷과 슬랙스, 레이스 디테일의 시스루 블라우스를 매치했다. 사각형의 블랙 브리프 케이스를 더해 절제된 올드머니룩을 완성했다.

글·사진 송석주 기자 ssp@

## 고환을 직격탄... 면세업계, 할인으로 불황 돌파

치솟는 달러에 면세품 가격 상승 롯데, 최대 160만원페이백 보상 신세계는 호텔 등 제휴 혜택 강화 현대도 결제 할인 '체감이 낮추기'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 선을 돌파하며 국내 면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고환을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달러 결제 기반인 면세점의 가격 메리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 업계는 파격적인 페이백과 글로벌 제휴 확대를 통해 '체감 할인율'을 높이는 등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중 1500원을 넘어서며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면세점은 상품 매입과 판매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

는 구조적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가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 시중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대비 유지해온 가격 우위가 사라지면서 방문객 감소와 매출 타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해외 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국내 주요 면세점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수요를 겨냥한 페이백과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내점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60만원의 롯데면세점 페이(LDF PAY)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카드사 제휴 혜택도 추가로 운영한다. 신세계면세점은 '글로벌 네트워크' 제휴 기반의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메리어트 본보이, 캐세이퍼시픽 등 호텔·항공사와의 멤버십 연계로 포인트 적립과 쇼핑 지원금을 강화했다. 결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환율 부담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 현대면세점은 결제 할인 중심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페이코 포인트 결제 시 최대 8%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공항점에서는 카드사 제휴를 통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만원 상당의 페이백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이번 고환을 사태가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닌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벤트성 할인만으로는 고환을 장벽을 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상승 가 된 상황에서 고객의 체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요 이탈을 막기 위한 가격 방어선 구축과 함께 환율 변동성에 강한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등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현호 기자 m2h@

## 스타필드 빌리지 운영 방문객 210만명 돌파

지역 밀착형 콘텐츠 효과 '톡톡'

신세계프라퍼티의 커뮤니티형 상업시설 '스타필드 빌리지 운영'이 개장 100일 만에 누적 방문객 2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이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4배, 운영신도시 인구의 7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다.

19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 빌리지 운영이 이처럼 단기간에 이러한 집객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철

저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가 꼽힌다. 실제 방문객의 약 70%가 인근 거주민이며, 재방문을 통한 50%에 육박해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시설 규모를 5만 2333㎡(약 1만 5800평)으로 확대한다. 27일 '유니클로' 오픈을 시작으로 교육·의료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강화해 경기 북부 최대의 로컬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하나금융그룹 가족 김윤지 선수

세상이 아직 주목하지 않았던 순간에도  
**하나금융그룹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김윤지 선수  
동·하계 올림픽-패럴림픽 통산  
단일대회 최다 5개 메달 획득

작은 시작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모든 여정을  
하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지 선수는 하나금융그룹,  
하나카드 김연수 팀장의 자녀입니다.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이자도 못 받는 깡통대출 급증... 은행 건전성 경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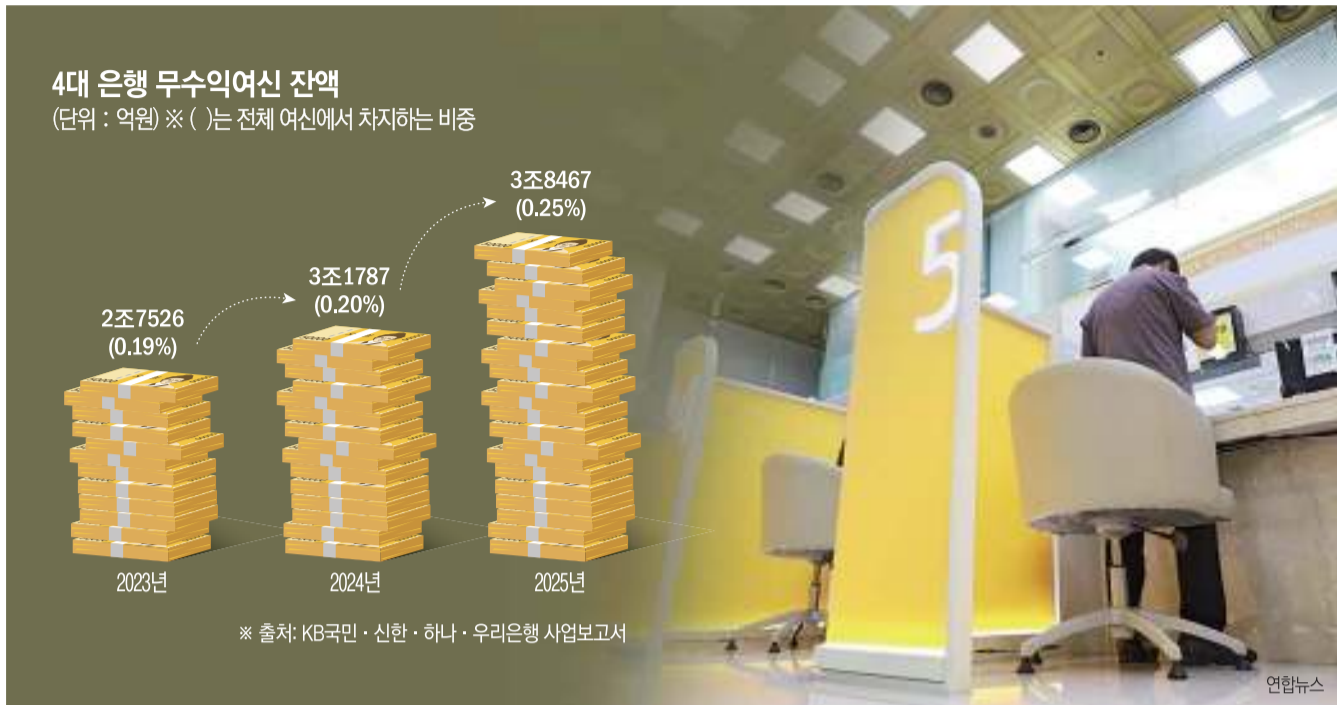
중기·자영업자 상환 여력 줄어  
무수익여신 1년 만에 20% 급증  
은행 손실흡수력 200% 아래로  
올해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 무게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탓이다. 부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권 건전성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8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1787억원) 대비 21%나 불었다.

이에 따라 무수익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말 0.19%에서 2024년 말 0.20%로 높아진 데 이어 2025년 말에는 0.25%까지 상승했다. 전체 대출보다 부실 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무수익여신은 통상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 가운데 이자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수익 인식을 중단한 여신을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깡통대출'로 부른다.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년 동기(0.50%)보다 0.09%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2%에서 0.72%로 0.10%p 올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

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취약 차주군부터 상환 여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 사정도 낙담하지 않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년과 같았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는 여전하다.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건비·임차료·원재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

금흐름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은행의 방어막은 얇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평균 NPL 커버리지비율은 171.7%로 전년 말 204.3%보다 32.6%p 떨어졌다. NPL 커버리지비율은 대손충당금잔액을 고정하여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부실이 현실화했을 때 이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200% 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 흡수 여력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행히 실적은 아직 버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다시 썼다. 순이자마진 축소에도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비이자이익도 외환·파생 관련 이익 확대에 힘입어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권은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는 동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회복이 더딘 데다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 변동성까지 다시 확대될 경우 한계 차주부터 연체가 빠르게 늘고, 이것이 다시 무수익여신과 고정하여여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취약 업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총당금 적립과 부실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며 "당분간은 성장보다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보험사, 기존 자사주 정리 방침... "자본건전성 영향 없어"

미래에셋 '한번에' 현대해상 '순차' 이달 주종 앞두고 처리 방식 주목  
당분간 추가 매입 계획은 없는 듯

보험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화하면서 보유 주식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 맞는 주총 시즌에 자사주 소각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회사별 정리 방식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는 전날 한화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이날 삼성생명, 20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23일 동양생명, 24일 한화생명, 26일 미래에셋생명 등으

로 이어진다. 자사주는 회사가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다. 이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보험사는 자사주 문제를 볼 때 자본건전성 지표인 K-IC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K-ICS는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신규 자사주 매입처럼 자금이 유출되는 조치는 자본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자사주를 한 번에 대거 소각할지, 일부를 남겨 활용할지에 따라 회사별 대응 방식도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자

사주 대부분을 소각하기로 했다.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합쳐 6296만주로, 보유 자사주의 약 93%에 해당한다. DB손해보험도 발행주식의 약 5.6%인 보통주 388만3651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발행주식의 12.29% 수준인 자사주 가운데 3%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고, 나머지 9.29%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나눠 없앨 계획이다. 자사주를 전량 정리하기보다 활용 목적이 있는 물량과 소각 대상 물량을 구분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K-ICS 비율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K-ICS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사주 소각을 곧바로 공격적인 환원 확대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보험사가 새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보다는 이미 보유 중인 물량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사들은 당분간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올해 보험사 주총은 자사주를 얼마나 소각할지, 또 일부는 어떤 목적으로 남길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가깝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별로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신규 매입보다 기존 보유분 정리에 무게를 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전이현 기자 cahyun@

##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DB손보 AI 에이전트 활용

DB손해보험이 금융산업 전반의 트렌드에 맞춘 고객 참여형 보상 시스템 'AI Agent(인공지능 로봇텔러)'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AI/AX 혁신기업 삼성 SDS와 협력해 개발한 'AI Agent'는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와 문자를 음성언어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적용된다. 고객은 별도의 대기 없이 AI Agent와 대화하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응답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효율 개선이나 반복적인 보상 안내 자동화에 그치지 않는다. 고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컨대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면 30분 이내에 AI Agent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를 진행해 사고 관련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AI Agent와 대화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정보공정 정보 입력, 치료 내용 및 병원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미치료 또는 차량 미수리 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상 청구권에서도 담보별 필요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서류 제출을 안내한다. 또 비대면 서식 활용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우선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인 AI 상담을 지원한다.

전이현 기자 cahyun@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신용도 낮으면 '그림의 떡'

은행·플랫폼, 고객 선별 경쟁  
소상공인들 "이용 쉽지 않다"  
의사·변호사 전문직에 유리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환승 통로'가 열렸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준과 업종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문턱이 높아져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일부 고소득 전문직 중심 서비스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이동 서비스가 시행되며 은행과 핀테크 플랫폼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

화됐다. 사업자대출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가계대출보다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대한 수요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대한 수요가 시장 기대만큼 크게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겉으로는 고객 유치 경쟁이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 경쟁'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별 신용도와 매출, 업종 등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이에 동일 조건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고, 대한을 통한 금리 절감 효과 역시 일부 우량 차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체감 난도가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이용자는 "조건이 좋은 일부 차주를 제외하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결국 더 유리한 대출을 따로 찾아 직접 중도상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은행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갈아타기에 따른 실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결국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중심 상품으로 전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dove@



Gettyimagesbank

# 주식 결제일 단축 추진...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불나

## 증시 'T+1' 체제 전환 전망

글로벌 시장 '하루 결제' 확대 정부, 체질 개선 패키지 내내 저PBR 기업 공표 제도적 압력 증권가, 지주사의 중복상장 등 NAV 저평가 원인 해결 기대

글로벌 자본시장이 주식 거래 후 대금이 하루 뒤 들어오는 'T+1'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추세에 맞춰 현행 'T+2' 결제 체제에서 'T+1' 체제로 변화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발표에 저(低) 주가 순자산비율(PBR) 종목전반과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기대 역시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24년 5월 28일 'T+1'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축이 '하루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시장과 연계성을 고려해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27일 전환을 마쳤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23년 1월부터 'T+1'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T+1' 도입을 앞둔 국가도 많다. 영국



과 유럽연합(EU), 스위스는 2027년 10월 11일 동시 전환을 목표로 합의를 마쳤다. 칠레·콜롬비아·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도 2027년 2분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시가 총액 기준 전 세계 시장의 약 75%가 'T+1'로 전환을 마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태국·대만·말레이시아·일본·호주도 'T+1' 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T+1' 도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선제적으로 청산·결제에 이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은 'T+1'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봤다. 제도 도입 4개월 만에 증권청산기구(NSCC)의 청산기금이 128억 달러에서 98억 달러로 약 23% 감소했다. 매매 체결부터 실제 결제까지의 기간이 줄자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과 급격한 주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사들이 리스크에 대비해 예치해야 할 증거금 부담이 줄었고, 그만큼 시장

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주가의 변동폭을 30%로 제한하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어 원래 증권사의 증거금 부담이 미국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국가간 시차 탓에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당일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지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많은 국가가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시아 시장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시차 및 환전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

수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날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청사진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을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저PBR 기업 공표 방안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온 기업들에 시장과 제도의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

지주사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중복상장 이슈, 구조개편 시 공정가액 산정, 저PBR 해소, 자산 공정가치 공시, 기관투자자 감시 강화 등이 모두 지주회사 할인을 축소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순자산가치(NAV)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중복상장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디스카운트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하는 기자 hey@·정수현 기자 int1000@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특화 솔루션 출시

투자전략·세무 등 전문가 100명 고객 요청에 맞춰 세미나 등 제공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Premier) 패스파인더'의 맞춤형 자산관리 기준을 정립한 특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2024년 7월 출범했으며, 신한프리미어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칭한다. 신한프리미어는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과 세무 전문가 이점욱 부단장을 중심으로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 소속의 전문위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한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도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세무, 부동산, 연금, 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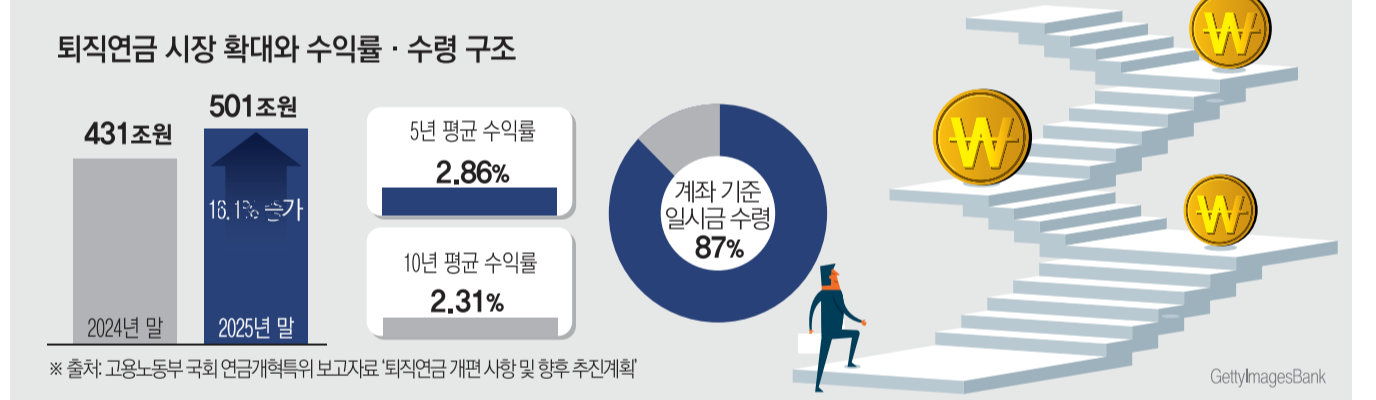
등 영역별 전문가들의 개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신한Premier 패스파인더는 자산가들의 다양한 고민과 요구사항을 10가지 상황으로 정리, 구성된 'Path # 10'을 출시했다.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Path'를 선택하면, 해당 영역에 특화된 전문위원들이 팀을 구성해 개인 세미나 및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선보이는 자산관리의 새로운 '길(Path)'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관리 길잡이로서 인생 여정 전반을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blue@



## 수익 못내면 퇴출... 500조 퇴직연금 '옥석 가리기'

정부, 부진 상품 적극 퇴출 나서 은행·증권사 수익률 경쟁 유도 국민 노후자산 가치 제고 뒷받침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인 성과 경쟁 체제로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영업력과 판매 채널이 좌우하던 시장이 수익률 경쟁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성과 부진 상품의 시장 퇴출'이다. 운용 성과가 미흡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상품은 신규 가입을 중지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강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방치된 노후자산'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원(잠정)으로 1년 전(431조원)보다 약 70조원(16.1%) 늘었다. 하지만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친다. 계좌 기준으로도 여전히 87%가 일시금으로 수령돼 퇴직

연금이 본래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과 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운용이 맞물려 수익률 제고 경쟁이 사라진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가 본격화하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만큼, 증권업계는 이를 점유율 확대의 계기로 보는 분위기다.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수익률 가시성이 높은 상품 라인업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예외주시하는 모습이다. 디폴트 옵션 주요 상품군인 TDF 성과가 하위권으로 밀려 상품이 퇴출되면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물론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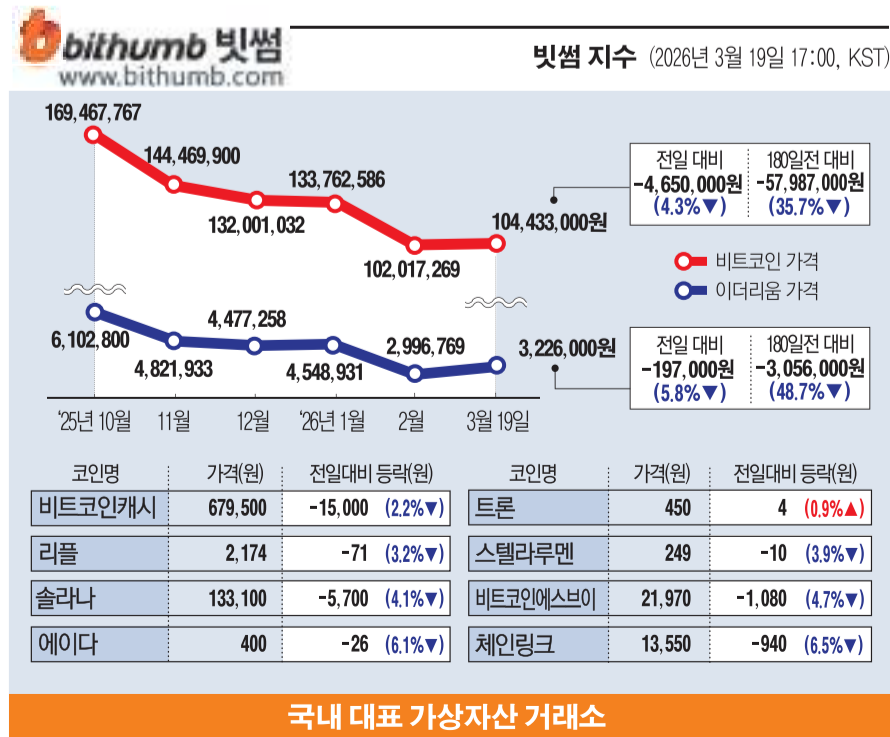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퇴직연금 시장을 '영업의 전장'에서 '운용 실력의 전장'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과 증권사 입장에서 단순 판매보다 수익률이 검증된 우량 상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라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좀비 상품'이 걸러지면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량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과도하게 묶여 있던 자산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로 이동할 경우 장기적으로 노후 수령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평가 경쟁이 과열되면 금융사들이 단기 수익을 방어에 치우치거나, 보수적 성향의 가입자에게 실적배당형 상품이 과도하게 권유될 가능성도 있다. 퇴직연금 도입의 무화 논의와 맞물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줄 세제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저성과 상품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자들이 자신의 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단순 저축을 넘어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명주 기자 szuu05@



# 한강벨트도 꺾였다... 성동구 집값 2년 만에 마이너스

### 서울 상승폭 7주 연속 둔화 흐름 동작구도 1년만에 하락세 전환 용산·강남3구는 4주 째 떨어져 보유세 늘어 조정지역 확대될 듯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성동·동작 등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급등했던 핵심지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세 부담 확대에 따른 매물 증가가 맞물리면서 하락 흐름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6일 기준)'에 따르면 성동과 동작이 하락 전환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이 약세를 보였다. 이번 주 하락 전환한 성동과 동작은 각각 -0.01%를 기록했다. 성동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만, 동작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약 1년 만의 하락이다.

강남 3구와 용산은 2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강동도 지난주부터 2주째 내림세다.

세부적으로 강남은 전주와 동일한 0.13% 하락을 기록했고, 송파는 0.16%



내렸다. 다만 송파는 전주(-0.17%) 대비 낙폭이 소폭 축소됐다. 반면 서초는 -0.07%에서 -0.15%로 하락 폭이 확대됐고 용산도 -0.03%에서 -0.08%로 낙폭이 커졌다. 강동 역시 -0.01%에서 -0.02%로 내림 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를 유지한 한강벨트 지역도 대부분 폭은 둔화했다. 마포는 0.07%에서 0.06%로, 광진은 0.21%에서 0.1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근 상승률 확대 조짐을 보였던 서울

외곽 지역도 기세가 한풀 꺾였다. 성북은 0.27%에서 0.20%로, 강북은 0.05%에서 0.02%로, 도봉은 0.07%에서 0.03%로 각각 상승 폭이 줄었다. 노원은 0.1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양천(0.13%→0.14%)과 금천(0.06%→0.10%) 정도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올라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줄며 7주 연속 둔

화 흐름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을 시사한 1월 말 이후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빠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송파구 매물은 2개월 전 대비 72% 증가했고, 서초는 53.5%, 강남은 44.9% 늘었다. 용산(45.6%), 성동(88.4%), 강동(74.2%), 동작(69.5%) 등 하락 지역에서도 매물이 급증하는 추세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핵심지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40~50%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매물 출회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끝나는 5월 9일과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이 큰 고령층 주택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하락 전환 지역들은 지난해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곳들로, 조정 국면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한강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6월부터 시장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고,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중저가 지역 역시 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ij42@

## 로봇이 경비·배송까지... 현대건설, 스마트 주거단지 속도

### 로보틱스랩·슈프리마와 MOU 로봇 기반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 입주민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현대건설이 로봇과 인공지능(AI), 통합 보안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6'에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AI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슈프리마와 '서비스 로봇 기반 주거단지 고도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거단지 내 로봇 생태계

를 구축하고 로봇 기반 생활 서비스와 보안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게이트와 자동문, 엘리베이터 등 주요 설비와의 연동과 안정적인 통신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과 인프라 연동 기술을 제공하고 비전 기반 AI 기술을 보안 영역에 적용한다. 로보틱스랩은 '모베드(MobED)'와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 등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며 복합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슈프리마는 통합 보안 플랫폼 '바이오

스타(BioStar) X'를 기반으로 AI 생체 인증과 모바일 출입인증 기술을 로봇과 입주민 서비스에 연동하는 통합 보안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기술을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와 '마이 힐스(My HILLS)'에 적용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입주민은 앱을 통해 로봇 호출, 단지 내 시설 안내, 로봇 위치 및 작업 상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지 내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 등 주요 인프라와 연동해 로봇이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세대 현관 앞까지 물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로보틱스랩의 지능형 보안 솔루션과 슈프리마의 AI 통합 보안 플랫폼이 연동되면서 단지 내 공용 공간과 사각지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로봇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보내고 보안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단순 보안을 넘어 '안심케어 서비스'로 확장된다.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단지 내 이동 중인 어린이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 방문객 안내와 출입 확인 기능을 통해 낯선 사람 접근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kij42@

## DL이앤씨·글로벌 설계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협업

### 아르카디스와 정비사업 현장 방문

DL이앤씨가 글로벌 설계사와 협업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 주요 임원진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계안을 최종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시 개발과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설계사다. 아랍에미리트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레지던스'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 시즌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 초고급 주거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뿐 아니라 기획과 운영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압구정5구역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르카디스 측은 현장의 지형과 한강과의 연계성, 주변 인프라 등을 점검하며 설계안을 보완했다.

아르카디스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한강을 품은 입지적 가치가 세계 최고급 주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며 "바람길과 일조량, 한강 조망을 모든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설계적 해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랜드마크 주거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톱티어 설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아르카디스와 함께 초고층 구조 설계 기업 에이러프(ARUP)과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에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해 단지를 '마스터피스' 수준으로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

##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 1600가구 대단지 조성

### 미아동 75일대 신통기획 확정

미아사거리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인 미아동 75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5층,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일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약 300m 떨어진 역세권으로 롯데백화점 미아점 뒤편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주변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일부를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서울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들어설 아파트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보정계수 1.8을 적용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상지는 강북구내 보기 드문 더블역세권 입지와 대형 상업시설 접근성을 갖췄지만, 1960년대 형성된 단독 저층주택이 장기기간 유지되면서 노후화와 기반시

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로 폭이 좁고 교통 혼잡이 심한 데다 보행환경도 열악해 정비 필요성이 컸다.

특히 주변 일대에서는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 중이어서 이번 재개발이 완료되면 미아사거리 일대 도시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지역 내 개발 불균형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를 핵심축으로 삼았다.

가장 큰 변화는 도로 체계다. 북측 오현로와 동측 오패산로는 향후 세대수 증가와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확폭된다. 오현로는 인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기존 3차로에서 5차로, 폭 25m로 넓어진다. 오패산로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인근 개발 수요를 고려해 기존 2차로에서 4~5차로, 최대 폭 22.5m로 확대된다. 이면도로도 함께 정비해 지역 내 접근성과 차량 흐름을 개선한다. 차량 출입구는 도봉로10길과 오패산로 변 두 곳에 계획됐다.

이안희 기자 nancho0907@

# ‘서울런’ 914명 대학 보냈다… AI 진로 코칭·멘토링 강화

## 올해부터 ‘서울런 3.0’ 가동

서울시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을 통해 900명이 넘는 학생이 대학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순한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까지 길러주는 종합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19일 서울시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런 이용자 중 914명이 대학에 합격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82명) 대비 16.8% 증가한 수치다. 의·약학 계열(22명)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54명) 등 이른바 주요 선호 대학과 학과 합격자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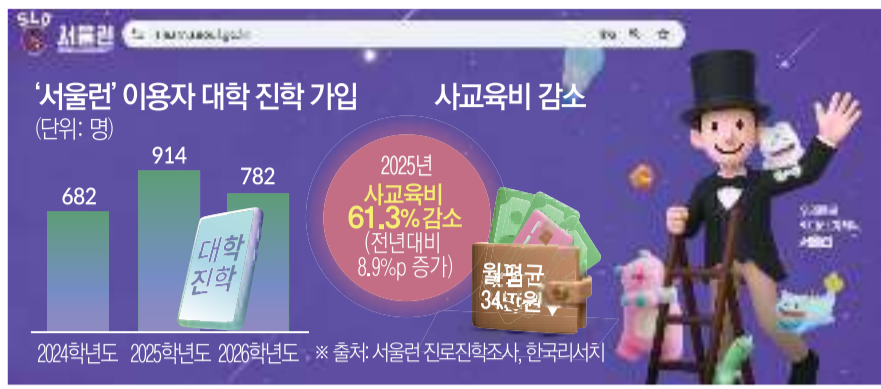
주요 대학 합격생의 평균 서울런 학습 시간은 약 326시간(1만9583분)으로, 전체 합격생 평균보다 64% 많았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수치로 입증됐다. 이용가구의 61.3%가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

의약학계 22명·SKY 54명 진학 2026학년도 합격자 16.8% 증가 사교육비도 61.3% 절감 효과 로봇 등 청소년 직업체험 제공도

했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액은 34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 2023년 87점에서 지난해 90점으로 꾸준히 올라 서울런 대학 합격 및 취업자의 95%가 ‘서울런을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런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 진도율도 미참여자 대비 최대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90%)와 멘티(94%) 모두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부터 ‘서울런 3.0’을 가동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 우선 다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대학과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캠퍼스’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로봇·부티 등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2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심리검사나 모의 면접을 제공하는 ‘진로·진학 AI 코치’를 정식 도입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과

12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풍성해진다. 기존 교과목 중심에서 벗어나 ‘클래스101(AI·직무 등)’과 ‘구름에듀(소프트웨어·코딩)’, ‘온리원(초등 맞춤)’ 등을 신규 도입해 이용자가 최대 6개까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진도에 맞춰 예·복습을 설계해 주고 전담

학습관리 교사가 학생별 학습 분석과 맞춤형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기존 10만원 상당의 교재 쿠폰은 ‘EBS 전자책 통합 이용권’으로 일괄 전환돼 500여 권의 교재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런’ 교육복지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시는 2024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평창군·김포시·인천광역시·태백시·예천군 등 6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16일 전남 영암군과 ‘영암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역량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진학은 물론 진로와 취업까지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왕과 사는 영월’ 박람회서도 인기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내·외국 여행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로 알려진 강원도 영월 부스를 찾아 여행지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직업계고 학생, 자동차 인재로 키운다

서울교육청,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의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자동차 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대학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한다.

1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독일식 이원화 직업 교육인 ‘아우스빌둥’을 서울 직업계고 교육 과정에 접목하는 것이다. 아우스빌둥은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과 대학 이론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자동차 기업이 참여한다. 만트럭버

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타트렉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 그룹코리아, 아우디코리아, BMW그룹코리아 등이다. 학생들은 이들 기업의 서비스센터 등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선발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일 ‘매칭데이 in 서울(1차)’ 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같은 달 2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후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실습을 수행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정비, 차체 수리, 자동차 도장,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4개 직군이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선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선발→현장 실습→평가→훈련 계약→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질을 높이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삼성물산 합병 피해” vs “위법·손해 없었다”

〈국민연금〉

〈이재용 회장 측〉

국민연금 ‘5억 손해소’ 본격 공방 1년6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 열어 이재용 측 ‘민형사 판결서 주장 배척’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은 약 5억1000만원이다.

앞서 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 비율로 보유지분 가치가 훼손됐다고 2024년 9월 소송

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를 부여하는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공단은 합병에 찬성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 관련해 합병 과정의 위법성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의결권 행사 주체라는 점에서 지위가 중첩된 사건”이라며 “합병과 정부 개입 부분을 나눠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소장은 합병 관련 부분에 집중돼 있고 정부 개입 부분은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공단 측은 합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며,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 대리인은 “삼성 측은 합병 비율을 통해 이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였고, 공단 내부 인사들은 이를 방조했다”며 “주주 이익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타당성과 가격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불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회장 측 대리인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합병 목적과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충분히 심리된 사건”이라며 “(원고 측 주장은) 수년에 걸쳐 이미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루자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도 합병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민사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소현 기자 sohyun@

## 캄보디아 ‘1호 한국어 교원’ 11명 배출

왕립 프놈펜대서 6개월간 교육 새학기부터 정규학교 배치 수업

교육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현지 교원’을 양성하며 한국어 교육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 배출된 11명의 수료자는 2026~2027학년도부터 캄보디아 정규 학교에 배치돼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를 비롯해 캄보디아 교육청·청소년체육부, 주캄보디아 대사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 교육협력 프로젝트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현지 인력을 선발해 체계적인 교원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2025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05시간으로 운영됐으며, 한국어 교육학·한국어학·교육실습 등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단순 언어 능력을 넘어 실제 수업 설계와 교수법까지 포함한 실무형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어 전공자나 한국 유학 경험자를 중심으로 ‘강사’ 형태의 교육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교원 양성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47개국 2777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 박물관·미술관도 '보랏빛' ... K콘텐츠 향연

## 국립문화기관 5곳, 특별 프로그램 운영

BTS 타임캡슐 전시·유물 영어 해설 등 컴백공연 중심 서울 전역 문화플랫폼 진화  
아리랑 연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마련  
팬이치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계기로 서울 전역이 거대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BTS 컴백 공연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립문화기관까지 참여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K컬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5개 국립문화기관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TS 공연을 한국의 역사·예술·문학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 축제로 확장해 국가 문화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BTS 컴백에 맞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 다목적홀에서는 BTS가 기증한 타임캡슐을 전시한다. 이 캡슐은 2020년 청년의 날 당시 멤버들이 기증한 것으로 음악과 팬, 청년을 상징하는 물품들이 담겨 있다. 관람객 참여형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역사관 해설에서는 BTS를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 과정을 소개한다. 체험형 전시 공간에서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맞춘 리듬게임도 제공된다.

어린이대상 교육 프로그램 '아리랑 오브락'도 운영된다.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100주년과 BTS의 '아리랑' 활동을 연계해 한국 문화 정체성과 음악의 흐름을 체험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에게는 시네마 키트가 제공되고 로비에는 포토존과 메시지월, 전통놀이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극장 내부와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앨범 비주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도 함께 선보인다. 한우희 문화평론가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중심으로 한



국립 문화 기관별 주요 프로그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구분	프로그램 명칭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해설	외국어 전시해설
	홍보	Icon Meets NMK-BTS
	상품개발 및 판매	BTS Album Merch '뭣즈x BTS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해설	MMCA: Meet the K아트
국립민속박물관	전시해설	외국어 전시해설
	체험프로그램	K-놀이터 x RUN BTS!
		K-콘텐츠 체험 마루
K-홍 한마당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청년이 청년에게: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와 선물
	외국어 전시해설	외국어 전시해설
	어린이 프로그램	아리랑 오브락(樂) -나운규의 아리랑(1926)에서 BTS의 아리랑(2026)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전시	BTS 도서 큐레이션
	미디어아트 전시	'작가의 노트'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전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엿새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외국인관광객이 BTS 컴백 공연 관련 래핑 광고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의 역사·예술·문학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 축제로 확장해 국가 문화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등 BTS 멤버들의 관심 유물을 영어 해설 영상으로 소개한다. 또한 하이브와 협업해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문 해설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MMCA: Meet the

K아트)을 운영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통놀이 체험 공간 K-놀이터를 운영하고, 투호·팬이치기·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BTS 음악 속 한국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공연 'K-홍 한마당'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도 '방탄소년단 음악에 영감이 된 책들'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 김영랑, 윤동주 등의 문학 작품과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또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한국 문학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송석주 기자 ssp@

## 류이치 사카모토 3주기 '거장의 마지막' 스크린에

내달 1일 개봉 '시네마 에세이' 관심

세계적인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시간을 담은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가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곡부터 미공개 음악, 유작 앨범 작업과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스틸컷. 사진제공 영화사 진진

정까지 아우르며 거장의 마지막 기록을 스크린에 담아낸 작품이다.

19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카모토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3년 6개월 동안 남긴 실제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네마 에세이다. 음악가로서의 치열한 창작 과정과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 마주한 삶의 끝자락까지 담담하게 포착했다. 특히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한 이후에도 끝까지 음악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품에는 'Merry Christmas Mr. Lawrence', 'The Sheltering Sky', 'Aqua' 등 그의 대표곡이 흐르며 감정을 이끈다. 여기에 투병 중 기록한 음악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된 유작 앨범의 제작 비하인드,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 했던 미완의 작업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포함됐다. 빗소리와 구름 같은 자연의 결을 음악으로 구현하려 했던 그의 마지막 실험은 영화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스페셜 GV와 프리미엄 상영 역시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21일에는 밴드 새소년의 황소윤, 27일에는 뮤지션 윤상이 참여하는 GV가 확정됐다.

이번 작품은 전자음악과 영화음악을 넘나들며 시대를 대표한 사카모토의 음악 세계를 다시 만나는 자리다. 동시에 한 예술가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음악과 삶, 그리고 죽음을 향한 사유가 어우러진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전망이다. 영화는 내달 1일 정식 개봉한다. 송석주 기자 ssp@

서목수의 목공 이야기

## 연희동사진관을 만든 서목수의 첫번째 책

목수의 가장 기본도구인 '연필'부터 현대 건축의 필수품 '타카'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목수의 연장」은 목공과 현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다.

부채꼴 지름 | 총 457p | 분량 25,000면

목수의 연장

목수의 연장

서목수의 주요작업 : 단심트 야사해임문어학원(2012) / 연희동사진관(2015) / 논평동 토가라사(2016) / 중부도 콘라텔(2019) / 송아농 김세일치과(2020)

시대의창



# 봄꽃길 따라... 바람과 햇살이 머무는 '비밀의 정원'

사람들은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으리라. 매력과 환멸이 공존해 아리송한 도시의 답답에서. 딱딱한 잿빛 콘크리트 더미에서. 순리를 거스르는 반자연적 문명의 창궐에서. 디스토피아를 예감케 하는 인공지능(AI)의 으스스한 행군에서.

정원은 일상의 권태와 긴장에서 놓여나고자 하는 이들을 프리허그처럼 포용한다. 식물과 사람의 관계를 증폭시킨다. 사람을 일순에 자연으로 회귀시킨다. 정원은 인류가 벼랑 끝에 서더라도 최후까지 동행할 만한 낙원이다. 설령 지구의 시계가 멈춰도 유적으로 남아 영속하리라.

정원 초입엔 계곡이 있다. 계절은 엄동. 골짜기가 얼었다. 암반도, 암반 틈새에 낀 나무도 얼어붙었다. 돌돌돌 흐르던 개여울도 광광한 얼음장을 뒤집어쓰고 있다. 빛이 도달하지 못한 골은 어둡해 조명 꺼진 무대를 연상시킨다. 공연 끝! 자연에게 겨울은 휴지이다. 골짜기의 풍색은 암암하고 처연해 비장미가 있다. 차고, 시니컬하고, 금속처럼 강고한 이미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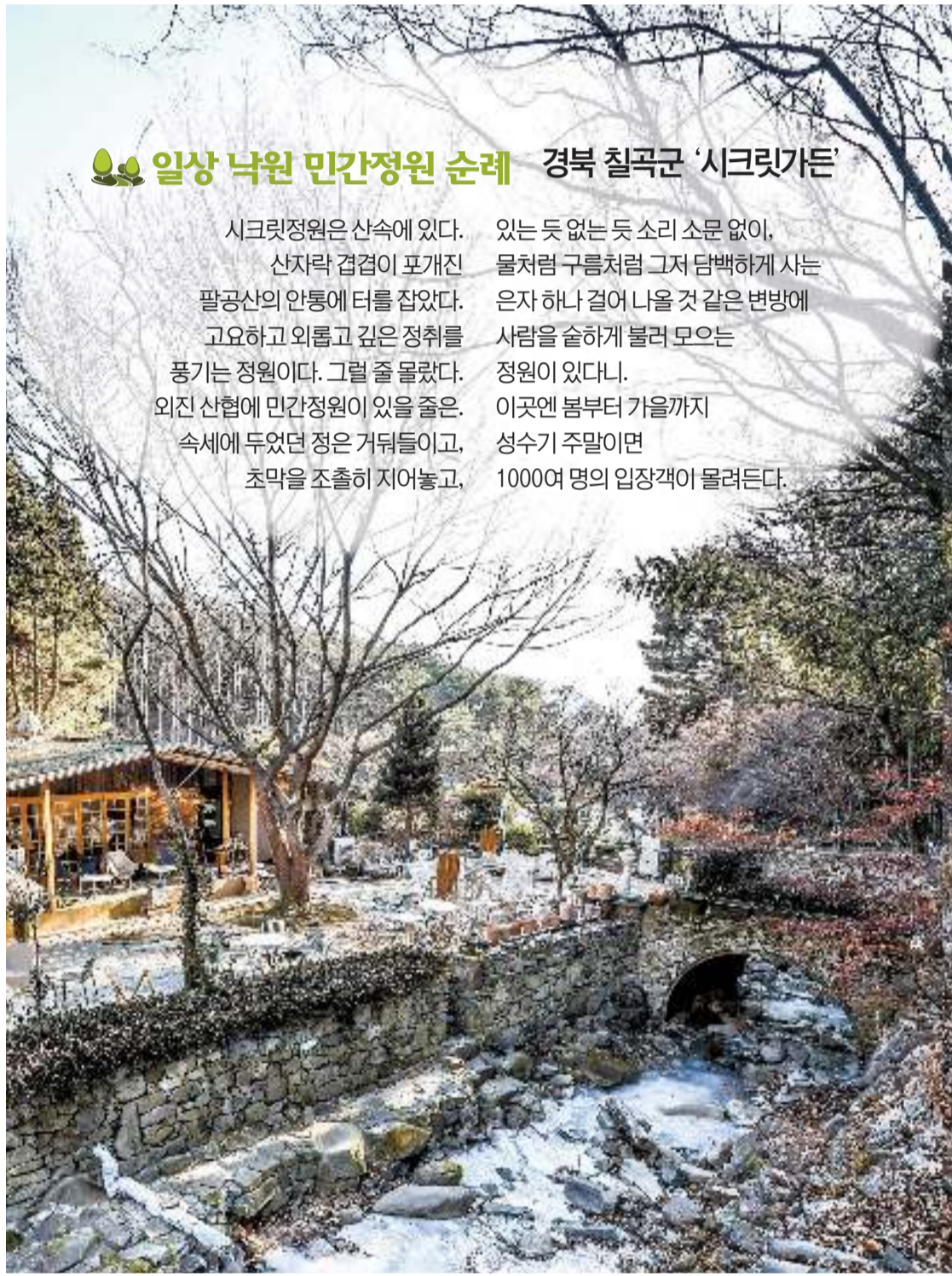
산자락 겹겹이 포개진 팔공산에 터잡은 정원 고요하고 깊은 정취... 사람을 자연 회귀시켜 AI시대, 일상 권태 벗어나고자 하는 이 포용 봄~가을 성수기 주말 1000여명 입장객 몰려

펼치는 고요의 향연이랄까. 이 악문 채 세한(歲寒)을 견디는 인내도 집힌다.

얼음 아래엔 물이 흐르리라. 세공한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파라미들이 유영할 테고.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자연히 이루어진 생명치고 죽기 전에 선불리 정지하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존재를 기적한다. 귀 기울이면 물소리가 들린다. 자세히 보면 물살이 보인다. 넥타이처럼 가느다란 물길이다. 얼음장 사이로 간신히 흐르는 물이 내는 소리는 여러,

안으로 침잠한 계곡이 연주하는 나직한 노래로 다가온다. 겨울 산의 말단 지체에서 뛰는 맥박으로 읽으면 그지없이 뜨거워진다. 꽃만 꽃이라. 여울물은 계곡의 결빙을 녹이며 흘러가는 하얀 꽃떨기다.

계곡맞은편엔 대숲이 있다. 잎없이 새파랗고 줄기마다 질푸른 대나무들, 유난히 난폭한 된바람에 밀린다. 갈피 없이 일렁거린다. 일제히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 허리를 방정맞게 비틀어댄다. 상상치 않다. 애초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발작하는가? 평생 부동자세로 서서 지속하는 식물의 삶, 그



## 일상 낙원 민간정원 순례 경북 칠곡군 '시크릿가든'

시크릿정원은 산속에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산자락 겹겹이 포개진	물처럼 구름처럼 그저 담백하게 사는
팔공산의 안통에 터를 잡았다.	은자 하나 걸어나올 것 같은 변방에
고요하고 외롭고 깊은 정취를	사람을 솔하게 불러 모으는
풍기는 정원이다. 그걸 줄 몰랐다.	정원이 있다니.
외진 산협에 민간정원이 있을 줄은.	이곳엔 봄부터 가을까지
속세에 두었던 정은 거뒀들이고,	성수기 주말이면
초막을 조출히 지어놓고,	1000여 명의 입장객이 몰려든다.

길게는 100여 년간 살다가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에 건진 꽃 한 번 하얗게 피우고 저문다. 꽃만 무너지는 건 아니다. 줄기와 뿌리도 이내 고사한다. 대밭이 통째 상여로 바뀐다. 꽃 핀 화려한 순간에, 얻을 것 다 얻은 시점에 집단 고사로 일체를 버린다. 완전한 무(無)로의 회귀, 시원한 해탈이다. 대나무를 따라갈 길이 없다.

시크릿가든의 모습은 조화롭다. 정원 하부엔 자연의 순수한 뒹뒹이를 보여주는 내추럴 패션 공간을, 상부엔 유럽풍을 차용해 모던한 공간을 배치했다. 다양성과 심미성의 층위를 구사한, 불거리 넉넉한 정원이다. 구석구석 정갈하고 요기조기 유려하다. 외곽 기슭엔 햇빛을 튕기며 하얗게 반짝이는 은사시나무들. 수려한 외모로 자존감을 돋운 그것들은 정원을 내려다보며 교만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의 패권을 틀어쥐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채.

물론 정원의 압도적 권위는 다른 데 있다. 꽃 중의 꽃, 나무 중의 나무는 정원주 하영섭이다. 그는 어머

세한 견딘 계곡 '물의 노래'로 다시 뜨거워져 화려한 춤판 벌이며 거센 북풍 이겨낸 대나무 꽃 한번 하얗게 피운 뒤엔 '완전한 무' 해탈 조화의 정원 일군 정원주는 한그루 겸손한 나무

니에게서 나왔지만 정원에서 다시 났다. 30여 년간 식물을 기르고 심기고 비위 맞추며 살았다. 대체로 정원주들 태반은 제정신이 아니다시피 식물 하나에 만 꽃혀 사는 외골수. 하영섭의 열 손가락엔 지문이 없다. 나무와 돌의 살을 만지는 사이에 다 문개졌다. 지독히 식물에 도취한 삶, 행복할까? 나무를 똑닮아 이치대로 살까?

“혼란에 빠지는 때가 많다. 허영심을 버리고도 순리를 쫓아가 어렵다. 식물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지만 가드닝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겨울에 개화하는 수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일 뿐이다.”

나무와 진배없다. 그는 티 낼 줄 모르는 또 한 그루의 겸손한 나무다. 내공이다. 득도가 멀지 않겠다. '나무는 말을 못 할 뿐,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나무와 교감하라. 삶의 길을 보려면!' 정원주가 발하는 뉴스가 그렇다. 진부한 삶일망정 안도할 만한 경지가 있다. 새롭고 자유로운 눈을 얻으면 되겠지. 정원은 그 눈을 달아주는 성소다. 그래서 낙원이다.

새 한 마리 마른 가지에 앉아 지저귀다. 살뜰히 정든 짝에게 보내는 연가인가. 염연한 기락이다. 동그랗게 종이를 오려 붙인 듯 선명한 낮달, 양증맞은 새를 내려다보고 있다.

글 / 박원식 소설가 tititoto@hanmail.net  
사진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루한 운명을 죽창처럼 봉기해 한번 깨볼 심산으로? 그러다 허리나갈라. 절개와 허심의 심벌인 청죽의 위엄에 오늘엔 금이 갔다. 달구치는 북풍에 빨났다.

그러나 바람을 이길 순 없다. 바람보다 빠르게 풀이 눕는 법이다. 밭 없는 것들의 재능은 바람을 타는데 있다. 대나무는 개종 고수다. 바람에 옆구리터진 대가 있든가. 저 대숲의 요란법석을 춤판이라 해두자. 대밭을 휩쓰는 폭풍 같은 북풍을 능란히 다루는 명장면이다.

대나무는 강하다. 횡망정 부러지지 않는다. 대나무는 생각보다 약다. 자기들끼리 이기적인 동맹을 맺

어 다른 식물이 영역에 투입할 수 없게 체비를 했다. 대밭의 모든 대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쇠그물처럼 견고하고 촘촘한 뿌리의 생태와 파워에 대나무의 진정한 천재성이 있는 것이다. 타 식물의 침투를 불허하는 대나무들의 연대와 아성이 그래서 가능하다. 대 뿌리는 텅스텐처럼 질기고 드릴처럼 집요하다. 헤드램프도 없이 불굴의 기세로 캄캄한 지하 멀리까지 사동팔달로 파고든다. 식물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굴한다. 대밭의 성황은 대 뿌리의 기계체에 힘입은 나머지다. 그리운 사람 고 이청준 작가는 대 뿌리를 지사(志士)의 상징으로 봤다. 물을 도사의 대표로 쳤고.

대나무의 종말도 천연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내가 원하던 i-ONE의 등장

ALL NEW i-ONE Bank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7969호(2025.11.21) 유효기간(2026.11.20)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다른 스키사랑 신동빈... 국가대표에 '통 큰 포상'

〈롯데그룹 회장〉

### 금메달 획득 최가은 선수 3억 등 스키·스노보드 선수단 8.6억 전달 유망주 발굴·육성 등 조력자 활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고 성과 뒤에서장기 후원을 이어온 '숨은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유망주 발굴부터 선수 육성 체계 구축까지 관여하며 국내 설상 종목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와 함께 19일 서울잠실시그니엘 서울에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를 열고 총 8억6000만원 규모의 포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단과 지도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와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단 및 지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 차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



롯데는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단 격려 행사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특별포상금을 수여했다. 신동빈(왼쪽부터) 롯데그룹 회장, 최가은 선수, 유승은 선수, 김상겸 선수. 사진제공 롯데그룹

은 선수에게 3억원을,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와 유승은 선수에게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6위를 기록한 이채은 선수에게도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와 알파인 종목 지도자에게도 총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특히 신 회장은 이날 '특별포상금'을 전달했다. 특별포상금은 신 회장의 사재로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한 최가은 선수에게는 1억 원을 수여했다. 은메달과 동메

달을 획득한 김상겸, 유승은 선수에게는 각각 7000만원과 3500만원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올림픽 기간에도 선수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을 전한 바 있다. 설상 종목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은 선수에게 직접 축하 서신을 보내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설상 종목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신 회장은 2024년 최 선수가 월드컵 도중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전액(7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선수 개인의

회복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후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

롯데는 10년 넘게 설상 종목에 체계적 지원을 해왔다.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를 맡아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 지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지원 규모는 800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장을 맡아 유망주 발굴과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월 대한체육회 감사패도 받았다.

신 회장의 '스키 사랑'은 재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키를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 시절에는 선수로 활동할 만큼 애정이 깊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관심이 장기적인 투자와 후원으로 이어지며 국내 설상 종목 육성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전한 선수단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 한국발명진흥회장에 구자용



구자용(사진) E1 회장이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발명마루에서 구자용 제21대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구 신임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 지식재산은 국가의 핵심 자산인 만큼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과 지식재산 그리고 기업 성장을 연결해 주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 고려대 디자인학부 학생·유승현 교수 'IF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고려대학교는 디자인조형학부 학생들과 유승현 교수팀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국제 공모전이다.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68개국에서 1만 건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다.

본상을 받은 작품 '시그널(Signal)'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사용자 경험(UX) 시스템이다.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호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유 교수는 "AI와 다양한 기술 요소가 디자인에 미치는 변화를 반영해 기술·데이터·인문학이 결합한 고려대의 융합 UX 디자인 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 솔루션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이세종 "중동전쟁, 사우디 AI 투자에 영향 없을 것"

〈휴메인 부사장〉

### 사우디 국부펀드 지원받아 설립 '한국기업 협업... 3년내 IPO 나설 것'

이세종 휴메인(HUMAIN) 부사장은 19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종 부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 최초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이미 운동장은 그 방향으로 틀어졌다. (AI에 대한) 수요가 이미 많고 거기에 대한 공급자들도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전쟁으로 뒤쳐지지 않고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휴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지원을 받는 AI 기업으로 지난해 5월 설립됐다.

이 부사장은 "지금까지 사우디는 석유로 돈을 벌었지만 미래에는 AI 연산을



이세종 휴메인 부사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위한 토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내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라며 "IPO를 한다는 건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가능한데, 이는 지식재산권(IP)에서 나온다. IP 확보가 핵심이고,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휴메인은 기업의 업무 시스템 전반을 AI 기반으로 통합 운영하는 '휴메인 원(HUMAINONE)'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휴메인은 한국 기업 발굴과 협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 이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로 올해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한국은 서비스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 서비스 수준도 높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휴메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에 30억달러(약 4조 4900억원)를 투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xAI와 협력해 사우디에 500MW 이상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글·사진 김동호 기자 sorahosi@



이은미(왼쪽부터) 토스뱅크 대표와 최승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리더, 남승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담당 리더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메시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토스뱅크

##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동참

토스뱅크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은미 대표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상거래 탐지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랜드월드 조동주 대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한용진 원장을 지목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LIG,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기부

LIG는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기부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기부식에는 최홍준 대표이사과 이성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LIG는 2021년부터 6년째 의료취약계층 지원 기부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홍준 대표는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 강승준 신보 이사장, 중동 리스크 기업 점검

### '농업회사법인 영풍'서 간담회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중동 사태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현장을 찾았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신보는 강 이사장이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식품제조전문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신보의 지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업체인 영풍은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우량 수출기업이지만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이사장은 제조 시설을 시찰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대



강승준(왼쪽 세 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8일 대구 달서구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영풍을 방문해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용보증기금

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석 기자 mins@

논현논단

데스크 시각

코스피 활황을 맞은 금융권의 풍경이 한층 화려해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앞다퉀 딜링룸(Dealing Room)을 전면에 내세우며 외환·채권·파생상품 운용역량을 강조한다. 대형스크린과 실시간 데이터, 수조 원 단위 자금을 굴리는 딜러들의 모습



송영록 에디터 겸 금융부장

세 정책,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변수는 신용손실 확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건전성 지표는 이미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국민· 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무수익여신은 3조 8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기업 부문 부실이 두드러지며 중소기업 연체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예금 이탈과 자산 건전성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게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대출 확대도 제약을 받는다. 전통적인 은행 모델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해법은 수익 구조의 재설계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곳에 머무르는 한 머니부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고객 자금을 '지키는 금융'에서 '불리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산관

그러나 이같은 딜링룸 축포 뒤에는 은행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는 모한 아 이러니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은행의 본업은 오히려 흔들린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자금 이동이다. 금리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환경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면 예·적금에 묶

딜링룸 축포 속 은행의 역할

여 있던 자금은 빠르게 증권시장으로 이동한다. 이른바 '머니부르'다. 은행에서는 저원가성 예금이 빠져나가고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NIM)이 압박받는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데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트레이딩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자금 이동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수혜 방향도 명확하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이자 수익 등 증권사들은 직접적인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린다. 은행의 경우, 딜링룸을 통한 시장 운용 수익이 일부 보완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예금 이탈이 가져오는 구조적 수익 압박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딜링룸의 불빛이 밝아질수록 예금 창구는 한산해지는 셈이다.

최근 은행권이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

리(WM)와 투자은행(IB), 시장 운용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고객 서비스로 연결할 때 딜링룸은 단순한 상장을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이 된다. 동시에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코스피 활황은 금융권에 기회이자 시험대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은행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통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자금을 붙잡는 금융에서 자금을 움직이고 설계하는 금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만 이 변화는 은행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금융 산업은 인허가와 규제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하기 쉽지 않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혁신금융 제도 등 규제 환경 역시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 syr@

'K푸드 세계화' 정책 도약 필요하다

'K푸드 세계화'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K푸드 세계화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푸드 패어'를 개최하고, 중동 두바이와 중국 등 주요 지역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를 설치하며 해외시장 기반을 강화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식품을 넘어 농기계, 스마트농업, 농자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K푸드+' 전략을 추진하며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K푸드는 이제 단순한 농식품 수출을 넘어 경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K푸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필자가 K푸드 관련한 기업가와 전문가들을 두루 면담한 결과는 K푸드는 이제 식품산업을 넘어 문화·관광·콘텐츠 산업과 융복합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K푸드 열풍은 정부 정책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류 문화와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식품 수출 중심·정부 주도형' 구조에 머물러 있는 K푸드 전략을 근본적으로 대 전환해야 한다.

최근 해외 언론도 K푸드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올해 2월 "왜 세계적인 한국 열풍이 김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는가(Why a global Korean craze is making seaweed more expensive)"라는 기사에서 한국 김(gim)과 김밥 열풍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을 집중 조명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김을 '검은 반도체(Black Semiconduc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김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은 11억달러를 넘어섰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도 수출액이 15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전체 농식품 및 관련 수출은 136억달러에 달했다. 해외 한식당 수도 약 4600 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K푸드 수출 확대 속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국제적으로는 한국 농식품이 국가 브랜드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식품산업 넘어 문화·관광과 융복합 한국 스토리 입힌 경험상품 준비해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적극 추진해야

다. 일본의 초밥이나 이탈리아의 파스타처럼 특정 음식이 곧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해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K푸드 소비를 확대하는 행사는 한식을 '길거리 음식(street food)'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적으로도 농식품 수출 증가가 농어가 소득이나 식품기업의 실질적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에서 벗어나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어떻게 국가 브랜드로 정착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춘 '2단계 K푸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

다. K푸드는 단순한 한국 농식품이 아니라 세계 소비자에게 한국의 감각과 문화를 전달하는 '경험상품(Experience Goods)'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동안 K푸드가 세계 소비자에게 '호기심(curiosity) 음식'이나 '영양상의 경험'으로 소비되었다면, 앞으로는 세계인의 '식탁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일상음식(everyday food)'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브랜드에 스토리와 지역성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소비 타깃과 품목, 시장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재외동포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현지 주류(mainstream) 소비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 세계 식품 소비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숯폼 콘텐츠가 젊은 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주력 소비층을 잘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핵심 소비층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잘 분석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역시 일본·미국·베트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동, 남미, 유럽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관광과의 융복합과 AI 시대에 맞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식문화는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제 농업에 문화를 접목하고, 문화 콘텐츠에 농업과 식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K푸드 세계화 대책은 도약을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과 민간이 함께하여 정책·시장·브랜드를 통합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팬덤 마케팅에 팬이 지치기 전에...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는 '줄 서는 소비'다. 인기 캐릭터, 콘텐츠, 유명인 등과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매장 앞에는 '오픈런'이 시작된다. 온라인에선 출시와 동시에 품절 소식이 이어진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심리와 협업 대상에 대한 충성도가 만든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일례로 작년 8월 농심이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데헌)와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신라면 1000세트는 1분40초 만에 품절됐다. 같은 해 K팝 콘서트 협업을 진행한 메가MGC커피는 당시 프리퀀시 이벤트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가입자가 53만 명 증가, 앱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팬덤 마케팅이 '불황 돌파구'가 되는 이유다.

고물가로 지갑은 닫히고, 경쟁사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덤 마케팅

노트북 너머

정영인

생활문화부 기자



은 브랜드와 제품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기회다. 무엇보다 브랜드를 반복 소비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시발점이란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 매출 확보를 위한 검증된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K콘텐츠가 글로벌 흥행 중인 지금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소비 환경에서 '확실하게 팔리는 방식'을 찾았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팬덤 마케팅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문제는 팬덤 마케팅이 과열 양상이

란 점이다. 협업과 한정판이 반복되면 희소성은 빠르게 희석된다. 당연히 소비자의 피로도도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팬덤에만 기댄 경우 브랜드나 제품 자체의 힘은 약해진다. 결국 붐이 사그라지면 지속가능한 소비는 이뤄지기 어렵다. 소비재의 유행 주기는 특히 짧다. 팬덤 열기에 기댄 소비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그만큼 빠르게 식고 만다. 결국 브랜드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팬덤 소비의 열기가 하나의 성공방정식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짧은 유행으로 남을지는 결국 브랜드 파워에 달렸다. 팬을 만드는 것만큼, 팬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다. 팬을 모으는 전략이 오히려 팬을 지치게 하는 역설이 되지는 않을지, 브랜드 마케팅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때다. oin@

이투데이, 말투데이

☆ 케니 로저스 명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가까이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배우, 사진가, 기업가다. 70여 개의 히트 싱글을 낸 그는 총 420주 동안 이 히트 싱글들을 모두 1위에 올렸다. 그의 히트 앨범인 '도박사(The Gambler)' '케니(Kenny)'는 어바웃닷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트리 뮤직 앨범 200선'에 올랐다. 그는 100회 넘는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이다. 1938-2020.

☆ 고사성어 / 부적규보

'반 발짝의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이라는 말이다. 손자(荀子) 권학(勸學)편에 나온다. "반 발짝의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 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물줄기가 쌓이지 않으면 장강(長江)과 황하(黃河)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趙)나라 손자는 쉼 없이 되어 제(齊)나라로 건너가 학문을 닦았다. 유학 간지 오래 지나지 않아 직하학사에서 최고의

권위와 존경을 받는 제주(祭主)의 직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제주에 올라 단 한 차례도 오르기 힘들다는 제주의 직위를 무려 세 차례나 역임했다.

☆ 시사상식 / 맥락 효과(Context effect)

자극에 대한 인식 및 지각의 과정에서 환경 요인의 영향을 설명하는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등의 한 측면이다. 이 효과는 단어 인식, 학습 능력, 기억 및 객체 인식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결정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쇼핑객이 제품을 검토하는 동안 서 있는 바닥 재질이나 디자인의 편안함 수준이 이와는 별개인 구매하려는 제품의 품질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닥이 편안하면 더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불편하면 낮은 평가로 이어진다.

☆ 신조어 / 700

'귀여워'의 초성 ㄱㅇㅇ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이투데이피플씨 미래설계연구원장

논현광장

# ‘유럽의 확장 억제’ 나선 佛의 도전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구하려 할까?” 1959년부터 10년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할 샤를 드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을 위협에 처했는데도 파리를 구하려 오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졌다. 핵무기 보유 국가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핵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공약이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냉전이 한창인 때에도 프랑스는 미국을 믿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에게만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제공했다. 그렇기에 프랑스는 국력을 총동원해 1960년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후 프랑스 핵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전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국 영국의 핵무기는 나토의 통합적인 핵전력에 속해 유럽 방어 계획에 포함된다. 이랬던 프랑스가 최근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의 비핵무기 보유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을 때리기 때문에 프랑스가 기존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일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의 일 통그 해군기지를 방문했다. 프랑스의 전략핵잠수함이 운용되는 곳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와 영국 등 8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7개국은 비핵보유국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8개국이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하거나 프랑스 핵기지 방문, 재래식 무기로 프랑스의 핵 훈련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다음 날 프랑스와 핵조정 그룹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확장 억제 제공 방식과 독일의 기여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도 유사한 기구를 통해 확장 억제를 논의하고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키어 스터머 총리는 지난해 7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 안병익의 유투피언 드림

대구대 군사학과 교수  
국제정치학



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전략 협력을 발표했다. 두 나라가 러시아의 핵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총리실과 프랑스 대통령실이 핵전략 협력을 다룬다. 프랑스 대통령이 독점하던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처음으로 완화했다.

프랑스는 2020년 독일 등에 유사한 제안을 했지만 당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만 해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인

식을 바꿔놓았다. 트럼프 집권 2기부터 시작된 유럽 때리기는 인식 변화를 더 재촉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은 유럽 방

어의 일차적인 책임을 유럽이 맡으라 요구했다. 유럽 각국에서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

마크롱 대통령은 확장 억제 제공과 함께 핵탄두 증강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50~100기 정도의 핵탄두 증강으로 본다. 현재 프랑스의 핵탄두는 290기인데 최소 340기로 늘어난다. 올해 프랑스 국방비는 575억유로(약 99조원)로 이 가운데 약 13%가 핵무기 유지에 사용된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 2년간 1% 인박에서 정체 중이다. 저성장 중인 상황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기에 복지 지출 감소는 쉽지 않다. 핵무기를 증강하려면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해야 한다.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다. 또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핵탄두 증강의 중요 변수다.

### 英佛, 러시아 핵위협에 공동 대응 美 '유럽 때리기'에 안보의식 커져 경제침체 지속에 예산 확보 '힘난'

## 한 킷



## 박물관으로 간 '스타크래프트'의 위엄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가 '스타크래프트' 박스 아트를 감싸고 있다. 낡은 브라운관 모니터와 키보드. 7080세대의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PC방의 한구석을 지키는 '현역' 게임이 여기서는 역사적 유물로 대접

받고 있다. 7080이 과거의 물건들을 보며 느끼던 그 신비로움을, 지금의 어린 세대는 이 빛바랜 하드웨어를 보며 느끼고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역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고 추억이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한국 자산시장이 유독 진폭 큰 까닭

### 시론

박이락  
송현경제연구소  
디지털금융본부장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자산시장은 왜 유독 크게 흔들릴까. 미국·이란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3월 초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낙폭은 크게 달랐다. 3월 3~4일 이틀간 코스피는 18.4% 하락했지만 일본은 6.6%, 대만은 6.5%, 중국은 2.4% 하락에 그쳤다. 반등 국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3월 5일 한국 증시는 9.6% 급등한 반면 주변국은 1~2% 상승에 머물렀다. 상승과 하락 모두 한국 시장의 진폭이 훨씬 컸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환율을 가리지 않고 한국 자산시장은 늘 큰 진폭을 보인다.

### 주식·환율·부동산 등 '냉온탕' 극심

이런 특징은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 외신은 한국 증시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장이 갑자기 냉각됐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BofA)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형적인 거품 현상(textbook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현상을 흔히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선호로 설명하기도 한다. '영끌', '포모(FOMO)', '뿔뿔'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성향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 자산시장의 몇가지 구조적 특징이 이런 행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

첫째는 기대수익의 불균형이다. 저성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줄어들면서 수익 기대가 일부 자산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서울 핵심 아파트, 특정 기술주, 일부 가상자산처럼 '오르는 자산만 더 오른다'는 경향이 반복되면서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가 늘어났다.

둘째는 디지털 투자 환경이 만든 즉시성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해외주식, 코인, 파생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자 결정의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라졌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투자 행동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셋째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체감 신뢰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의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약할수록 투자 결정은 장기 가치보다 시장의 단기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넷째,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이다. 대외 개방도가 큰 데다가, 자본 이동도 빠르며, 주택은 단순 거주재가 아니라 핵심 자산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불안이 다른 시장으로 쉽게 번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개인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함께 시장 구조와 수시로 바뀌는 정책 환경 요인도 크다.

###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높여야

따라서 정책 대응도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산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주식·해외투자·가상자산을 각각 따로 보지 말고 가계 자산 배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 시장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자산시장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명한 제도 설계를 통해 시장의 깊이를 더하고, 투자자는 긴 호흡으로 자산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자산시장은 '투기'의 꼬리표를 떼고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침지의 인력거와 인공지능

### 문학의窩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얼마 전,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았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로봇과의 전면전, "공장에 단 한 대도 들일 수 없다." 이 절박한 외침 곁에 적힌 "연간 유지비 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신입 노동자의 인건비보다 인공지능이 더 저렴해진 시대가 왔음을 시사한다. 한때 유망하던 직종, 디자인이던 이 도도한 흐름을 비켜갈 수 없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셨다. 이른바 라다이트 운동이다. 21세기 우리는 그 장면을 대자뷔처럼 목격한다. 그러나 역사는 기계의 승리로 기록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계미학, 곧 기능주의 미학이 싹텄다. 인간의 손을 밀어낸 기계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그 격랑 속에서 기술과 예술이 교배하며 '산업디자인'이 탄생했다. 기술의 건조함을 인간의 감성으로 감싸 안으려는 시도였다.

30여 년 전, 내가 박물관에 첫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오래된 유물을 모아놓은 곳에서 디자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디자인 이전의 문명, 즉 인간의 욕구와 감성이 사물에 어떻게 스며있는지를 보았다.

잘 만드는 손의 능력이 무력해진 인공지능 시대, 그때의 경험은 기능과 효율을 숭배하던 모더니즘 이후 다시 인간의 지성을 호출하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작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등장하는 인력거꾼 김침지는 노력 부족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그의 불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거보다 기계를 우선시하는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손재주는 단순히 손을 잘 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표현

할지를 가능하는 눈, 곧 선택의 감각까지 포함된다.

디자인은 오랫동안 산업의 효율과 합리에 복속해왔다. 이제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완벽한 결과물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가려내는 '안목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이 안목은 결국 인간의 감각과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는 박물관 곁을 지켜야 하고, 디자이너는 머리를 식힐 때조차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이 오차 없는 정답을 낼수록, 우리는 불확실하더라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 기계적 조형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유물에 담긴 유구한 삶의 이야기와 캔버스가 제기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가 사양 산업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물리적인 조형을 인공지능이 대신할수록, 우리는 다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환경에 맞춰 변하고 진화하는 것, 그것이 디자인의 숙명이자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디자이너는 '만드는 손'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뇌'와 '느끼는 심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역시 기술일 뿐이다. 손만이 아니라, 뇌로 사고하고 가슴으로 감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다. 애초부터 디자인은 손과 머리, 가슴의 합작이었다. 그것이 인류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 SAMSUNG

##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